

제 1교시



성명

수험 번호

4

(1~2)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식품 의약품 안전처는 2016년에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을 내놓고 비만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설탕 섭취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2020년까지 하루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당으로 환산 시 50g 에 해당하는 200kcal, 즉 무게 3g 인 각설탕 16~17개 수준으로 설탕 섭취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성인 권장량 기준으로만 해도 유아들은 지금보다 각설탕 10개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 설탕 섭취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공식품의 당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부터 반대 측 순으로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1 : 설탕은 건강을 해치는 공공의 적입니다. 한국인의 총 섭취 열량 대비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2007년 13.3%인 59.6g 이던 것이 2013년에는 14.7%인 72.1g 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당 섭취량은 세계 보건 기구 권고량의 2.5배를 훨씬 웃돕니다. 특히 아동들은 설탕에 더욱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6세에서 11세 사이 아이들의 하루 평균 당 섭취량은 77.4으로 3g짜리 각설탕을 기준으로 26개 분량을 먹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아 비만과 당뇨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도 ‘설탕과의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한 예로 영국 정부는 2018년부터 설탕세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선진국과 같이 엄격한 설탕 규제 법안을 만들어 가공식품의 당류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반대1 : 설탕은 담배와 달리 무조건 해로운 식품이 아닙니다. 설탕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인 탄수화물의 공급원이 되는 식품이고 음식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 중 하나일 뿐 아니라, 오늘날 많은 가공식품에 필수적으로 함유되는 요소인 만큼 전혀 먹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과도한 설탕 섭취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기업들이 당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의 입맛을 하루아침에 바꿔 가공식품의 당류 사용을 규제하자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당을 줄일 경우 맛과 품질의 획일화로 인해 제품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고, 모든 제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당 함량을 줄이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폭을 좁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괄적으로 당류 사용을 규제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당이 적게 든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속전속결 식으로 가공식품의 당류 사용을 규제한다면 국내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경영 악화를 초래해 국내 가공식품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보기>는 토론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한 것 끼리 바르게 묶은 것은?1)

보기

- ㉠ 사회자 : 시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에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 사회자 : 토론의 논제를 명확히 밝히고 토론의 순서를 정해 주고 있다.
- ㉢ 찬성1 : 비유를 이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 찬성1 : 다양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 반대1 : 찬성자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전면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 반대1 : 사회자와 찬성자가 제시하는 내용과는 다른 방향을 설정하여, 논의를 결과가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며 찬성자 의견에 반대하고 있다.

- ① ㉠, ㉡, ㉢, ㉣ ② ㉡, ㉢, ㉣, ㉥ ③ ㉡, ㉣, ㉤, ㉥
- ④ ㉠, ㉡, ㉢, ㉥ ⑤ ㉡, ㉢, ㉣, ㉥

2. <보기>를 참고하여 찬성 측이 반대1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당류 규제의 실현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주장을 펼친다고 할 때, 그 발화 내용을 구성하여 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2)

보기

설탕을 대체할 인체에 무해한 천연 감미료를 개발해 저당 제품에 적용하는 데는 최소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걸린 것으로 예상된다.

- ① 지금 제품에 당 함량을 줄이면 제품의 맛의 획일화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불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탕에 대체할 인체에 무해한 천연 감미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미료를 제당 제품에 적용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 새로운 감미료 개발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② 지금 당장 일괄적으로 당 함량을 줄이면 제품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공식품의 당류 사용을 규제하기보다는 기업에서 설탕을 대체할 천연 감미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1~2년 유예 기간을 둔 후에 규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측에서도 기업들이 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셨으니 제 주장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 ③ 설탕이 인체에 해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아에게는 이미 자료에서 확인하였다고 유해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아는 더군다나 과자와 빙과류 등 군것질거리를 많이 먹습니다. 따라서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감미료 개발을 통해 당류를 저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반대 측이 먼저 제시한 것이니 제 생각과 일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④ 설당을 과다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가공 식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더더욱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당을 대체할 인체에 무해한 천연 감미료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는 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당류 저감 섭취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기업이 먼저 나서야 할 것입니다.

⑤ 지금 당장 모든 기업이 당 함량을 줄이면서 맛의 획일화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제품 구매력도 떨어져서 오히려 다른 방식의 당류를 섭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보다는 기업에서 설당을 대체할 천연 감미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 측에서도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셨으니 이러한 체계적 절차에 의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3~5) 다음은 학생들의 반대신문식 토론 과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세계는 지금 고갈되고 있는 천연자원 문제로 인해 에너지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력 생산 시설을 확충하기도 하고, 에너지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는 등 온갖 힘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란 핵분열 반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가정이나 산업체에 공급하도록 설계된 시설을 말합니다. 이런 원자력 발전소는 전력 생산비가 적게 들어 경제적인 반면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크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예절을 지켜 주시길 당부하면서 찬성 측 제 1토론자의 입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찬성측1 : 저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전력 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원자력 발전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이 적합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원자력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력 1킬로와트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더라도 석탄은 90원, 수력은 143원, 경유는 1330원인데 비해, 원자력은 36원입니다. 둘째,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을 쉽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라늄은 세계 전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가격이 저렴한 데다 가격 변동의 폭도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라늄을 수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

습니다. 앞의 두 가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원자력 발전소 개발을 찬성합니다.

사회자 : 네, 반대 측 제 2토론자는 반대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측2 : 원자력 에너지의 생산 비용이 다른 에너지 생산 비용보다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다른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찬성1 : 네,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원자력 발전소 개발의 초기 투자 비용은 다소 비싸지만 한번 건설되면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충분히 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반대 측 제 1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측1 : 저는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알고 계시죠? 당시 유출된 방사능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까봐 많은 사람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또 1986년에는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천문학적 인 경제 손실을 입었고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해 체르노빌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를 출산하는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체르노빌은 아무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거대한 핵 폐기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아도 원자력 발전소 개발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찬성 측 제 1토론자는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측1 : 지금 반대 측이 예로 든 후쿠시마 사고는 원자력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였고, 체르노빌의 사고는 운전자의 실수와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인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걱정만 앞세우기보다는 앞의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일이 아닐까요?

반대측1 :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매우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철저히 대비하고 조심하다고 해도 기술적인 실수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기술에 대해 100퍼센트 안전을 장담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다음은 (㉠)측 제 2토론자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2 : ()

3. 사회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논제를 토론해야 하는 당위성을 위해 토론 내용과 관련된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논제의 핵심이 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토론자들에게 정리해주고 있다.

- ③ 논제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여 토론자들에게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논제에 대한 토론자 사전 지식을 확인함으로써 논제에서 쟁점을 도출하고 있다.
- ⑤ 토론에 임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토론 형태에 따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4. 토론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

- ①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있다.
- ② 논제의 형태는 가치 논제로 토론자들은 자신이 주장하는 가치보다 바람직함을 입증하고 있다.
- ③ 쟁점1은 경제적 측면으로 찬반 양측이 원자력 발전소 초기 건설 비용에 대해서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 ④ 쟁점2는 위험성 측면으로 반대측은 실제 일어난 구체적 사례를 들어 피해의 심각성을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 ⑤ 쟁점2는 위험성 측면으로 찬성측은 구체적 사례를 다른 관점으로 제시하고 현명한 대비책을 논거로 사용하고 있다.

5. 반대 신문식 토론의 맥락을 고려하여 다음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5) [3점]

	㉠	㉡	㉢
①	찬성	반론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②	찬성	입론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③	찬성	입론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원자력 발전을 개발해야 합니다.
④	반대	입론	원자력 발전의 문제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폐기물이 만들어집니다.
⑤	반대	반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생각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합니다.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계획>

작문 목적 설정하기	•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를 학급 친구들에게 발표를 하려고 한다.
전략 수립하기	• 대장암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자료 수집하기	•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소 식단이 보이는 영양소의 불균형을 시각적 자료로 제시한다. ……………㉡
내용 선정하기	• 삼촌께서 갑작스럽게 대장암이 발생하여 큰 수술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도입부에 제시하여 독자의 흥미를 이끌어낸다. ……………㉢ • 오랜 투병으로 인한 삼촌 님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암환자들의 사회적 대책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있어 어떤 음식이 효과가 높은지를 제시한다. ……………㉤
내용 조직하기	• ‘문제점 제시 → 문제점의 원인 → 문제점의 해결방안’의 순서로 논지를 전개한다.

6. ‘대장암 예방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작문계획>과 같은 글쓰기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 중 글쓰기의 계획으로 어색한 것은?6)

- ① ㉠ ② ㉡ ③ ㉢ ④ ㉣ ⑤ ㉤

7. 작문 계획에 따라 <보기>와 같은 초고를 작성하여 보았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7)

보기

<초고>

평소 건강하셨던 삼촌께서 대장암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갔습니다. 회복 중이긴 하셨으나 투병생활이 힘드신지 안색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문병 후 저는 집에 돌아와 대장암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자료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잘못된 식습관이 대장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육류 위주의 식단을 식이 섬유가 많이 포함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고, 마늘·토마토와 같이 항암 효과가 높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장기에 있는 친구들의 사소한 습관부터 고쳐 나가는 것이 건강한 삶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공감했으면 합니다.

- ① 일상의 체험을 바탕으로 개성적 관점에서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표현 행위이다.
- ② 예상 독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친교적 관계를 증진하게 해주는 표현 행위이다.
- ③ 예상 독자에게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해 특정한 목적을 이루려는 표현 행위이다.
- ④ 주장의 실현에 따른 효과를 제시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표현 행위이다.
- ⑤ 예상 독자가 처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표현이다.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제목 : 여성의 권리 신장

개요

I. 서론 : 문제 제기

II. 본론

1. 여성 차별의 실태

2. 여성 차별의 원인

가. 편견

나. 가정과 사회

3. 문제 해결 방안

가. 정부에서 할 일

나. 여성이 해야 할 일

III. 결론 : 여성의 역할과 전망 ㉠ (사례제시 → 일반화 → 긍정적 전망)

[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보브와르의 주장처럼 양성평등이 당연시되는 ㉡현대 사회에서만 볼 아직까지 차별과 편견이 도처에 남아 있다. 가정에 서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지역 사회 등에서 보이지 않는 벽과 유리천장에 맞서 싸우는 여성들의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성차별이란 생물학적, 사회적 성에 근거하여 여성을 차별하는 모습을 말한다. 대개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전통적 관념을 근거로 여성들이 겪는 억압의 형태를 ㉢지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차별은 출생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유교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의 영향으로 여성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방해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인정하듯이 차별은 편견에서 시작된다. 비단 남성들이 지니고 있는 가부장적 의식 때문만이 아니다. 모성보호까지는 바라지 ㉣않으며 회사에서 암암리에 시행되는 제도나 규칙 또는 관습으로 인해 여성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 외부업체와의 중요한 계약 또는 그를 위한 회의 등에 당연히 남성이 중심이 되어 참여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결정 또한 차별의 한 모습이다. ㉤또한 여성 스스로가 자신들을 차별적 시선으로 얹매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차별은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일을 할 때는 차이가 아닌 차별을 은연 중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남녀평등의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 및 정치의 여성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용 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의식이 이루어지도록 고용 차별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직장 내 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의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여성 스스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고 필요할 때는 자신들의 요구를 당당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8. <보기>는 [초고]를 쓰기 전에 접한 글감과 이를 활용한 개요 수정 방안이다. ㉦~㉨ 중 [초고]에 반영된 내용으로 묶은 것은? ㉩ [3점]

보기

○ [새로 접한 글감]

A : 남성과 다른 대우를 받고자 하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 : 기업체에서 여성의 꼼꼼한 면을 높게 평가하고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C : 여성의 권리 신장으로 남성이 역차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개요 수정 및 글감 활용]

II-2에 ‘여성의 의식’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고, 글감 A를 제시한다. ----- ㉦

II-3에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추가하고, 글감 B를 바탕으로 기업의 의식 변화를 강조한다. ----- ㉧

II-3-가에서 글감 C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법률을 신속하게 제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한다. ----- ㉨

II-3-나에서 글감 A, C를 바탕으로 ‘여성들은 남성과는 다른 분야에서 자신의 특기를 살리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한다. ----- ㉩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9. ㉠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① 무슨 일을 하든지 여성이 하면 ‘최초의’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여성 총리’, ‘여성 파일럿’, ‘여성 대통령’ 등의 말이 무의식중에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 이제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인정해야 할 때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여성의 사회 참여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 ② 우리 사회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인해 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성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성비불균형 현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일단 태어난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차별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했으나 아직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유교의 남녀차별 사상에 입각한 성역할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
- ③ 여성 취업은 상대적으로 학력과 임금 수준이 높은 행정 관리, 전문 기술직에는 제한되어 있다. 반면 학력과 임금수준이 낮은 서비스, 판매직에는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여성 노동은 남성에 비해 보조적이며 부차적인 것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가치를 생산한다는 사회인식이 그 원인이다. 이러한 편견을 이용하여 여성 노동력에 대해 실제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 ④ 여성들이 실시하는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법제도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를 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는 대중 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 매체를 통해 남녀 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⑤ 먼저 여성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서비스와 실직 여성을 위한 재취업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직업 훈련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들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성차별 상담 서비스 등을 강화해야 한다. 제택 근무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그 이후가 될 것이다.

10. ㉠~㉥을 고쳐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0)

- ① ㉠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현대사회에서조차'로 고쳐 써야겠어.
- ② ㉡ :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지칭하기도'로 고쳐 써야겠어.
- ③ ㉢ :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않더라도'로 고쳐 써야겠어.
- ④ ㉣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그러나'로 고쳐 써야겠어.
- ⑤ ㉤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차별을'을 첨가해야겠어.

11.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이다.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에 따른 표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1)

보기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① 그는 친구에게 적잖은 신세를 졌다.
- ② 그렇지만 경우가 그렇잖거든요!
- ③ 그는 옷차림이 언제나 깨끗잖다.
- ④ 그는 부르튼 얼굴로 시원잖게 대답했다.
- ⑤ 그녀에 대한 소문이 심심잖게 들려왔다.

12. <보기>는 ‘의존 명사’와 관련된 용례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2)

보기

- (가) 나는 규정대로 할 따름입니다.
일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내지 못한다.
- (나) 손을 다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일 떠날 이라 오래 붙잡지 못했다.
- (다) 정원에 은행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논에는 벼의 그루만이 남아 있었다.
- (라) 그의 행동도 이해할 만은 하다.
하루 종일 잠만 잤더니 머리가 멍했다.

- ① 의존 명사는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등 다양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 ② (가)를 참고할 때, 의존 명사 앞의 관형어로 용언이 올 때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만이 가능하다
- ③ (나)를 참고할 때, 의존 명사 앞에 오는 용언의 관형사형은 과거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기능도 함께 할 수 있다.
- ④ (다)를 참고할 때, 수 관형사 뒤에서 수량을 세는 단위를 표시하는 의존 명사는 문장에 따라 자립 명사로 쓸 수도 있다.
- ⑤ (라)를 참고할 때, 조사는 생략해도 문장에 이상이 없지만 의존 명사는 생략하면 문장 구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13. <보기1>은 피동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3) [3점]

보기 1

우리말에서 타동사의 피동 표현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우선 ‘타동사 어간 + 이, 히, 리, 기’의 방법이 있다. 접미사를 붙여 피동 표현을 만들기 때문에 파생적 피동이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쓰다 → 쓰이다, 부르다 → 불리다, 바꾸다 → 바뀌다’와 같은 피동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타동사 중에는 이와 같은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 ‘주다 → 주어지다, 만들다 → 만들어지다’와 같이 ‘타동사+아/어지다’로 만들어지는 피동사도 있다. 이는 보조 용언 ‘-아/어 지다’가 붙어서 된 것으로 통사적 피동이라 한다.

우리말 피동 표현은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느 한 가지를 따르게 되는데 ‘쓰여지다, 불리워지다’ 등은 접미사에 의한 피동과 보조 용언에 의한 피동이 겹쳐진 것으로 흔히 이중 피동이라 부르며, 특별한 표현 목적이 없는 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보기 2

- ㉠ 들만 곳곳에 까맣게 그을린 농부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
- ㉡ 이 건물은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보태어졌다.
- ㉢ 우리는 버스를 타고 유해가 모셔져 있는 장소로 이동했다.
- ㉣ 불이 대낮처럼 밝혀져 있는데도 집 안은 인기척 하나 없다.
- ㉤ 그 소설책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혀진다.

- ① ㉗의 '그을린'은 '그을다'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적 피동사에 해당한다.
- ② ㉘의 '보태어졌다'는 '보태다'에 보조 용언이 붙어 만들어진 통사적 피동사에 해당한다.
- ③ ㉙의 '모서져'는 '모시다'에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것으로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㉚의 '밝혀져'는 '밝다'에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모두 쓰인 이중 피동에 해당한다.
- ⑤ ㉛의 '읽혀진다'는 '-히'와 '-어지다' 겹쳐진 것으로 '읽힌다'로 고치는 것이 옳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향가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독 방법은 향가가 쓰인 당대의 언어로 해독해 내는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는 신라시대의 언어와 고려시대의 언어에 대한 전모는 말할 것 없고 그 편린조차도 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오히려 역으로 향가를 통해 그 당시의 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꾀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향가의 해독에는 후대의 논리에 의한 해독이 시도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197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석독구결 자료라고 불리는 구결자료가 쏟아져 나와 적어도 12~13세기 고려시대의 언어를 형태적인 측면은 말할 것도 없고 문장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살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조선시대의 한글 문헌에 담겨 있는 몇 어형도 향가의 해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법형태의 통합관계에 대한 이해는 이 후대의 어형이 도움을 주는 바가 많다.

향가의 해독에 대한 기준은 학자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양주동과 김완진의 해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완진의 해독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주동의 연구에서 어느 정도 마련된 이래 김완진의 연구에서 가장 정지한 해독 기준이 마련되었다. 여기에서는 김완진(1980)에서 마련된 ㉡해독 기준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먼저 살펴볼 원리는 훈주음종의 원리이다. 이것은 '위 글자는 새겨 읽으나 아래 글자는 새겨 읽지 않는다'는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의 원리와 거의 유사하며 (같은 것으로서) 어떤 어형을 표기함에 있어서 개념에 해당하는 차자를 앞에 놓고 그 한자의 뜻으로 읽게 하고 그 어형의 끝부분에는 음으로 읽을 차자를 놓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한 어형 내에서 '말음첨기'에 의해 뒷부분이 음으로 읽힐 차자를 놓는 방식을 가리킨다. 이 원리는 한 어형 내에서 실질형태소와 문법형태소가 결합해 있는 어형이 대개 실질형태소에 해당하는 차자는 훈으로 읽고 문법형태소에 해당하는 차자는 음으로 읽는 표기 원리와 유사한 일면을 가진다.

다음으로는 일자일음의 원리이다. 이는 한 차자는 원칙적으로 한 음으로 읽힌다는 원리이다. 향가의 표기가 매우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 원리가 수립됨으로써 어느 정도 과학적인 해독의 원리가 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글자를 여러 음으로 읽는 자의성이 해독 과정에서 지양될 수 있는 기본원리가 되었다.

맥락 일치의 원리 및 율조적 기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기준

들로, 전자는 문장의 맥락 안에서 가지는 의미와 관련되고 후자는 향가도 시가인 만큼 일정한 율조를 해독에서 배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음 <자료>는 향가 「제망매가」의 해독과 관련된 글의 일부이다. <자료>를 읽고 14번, 15번 문제에 답하시오.

<자료>

此矣有阿米次盼伊遣 : '此矣(차의)'는 중세국어로는 '이에' 정도에 해당한다. '此'는 훈차 표기, '矣'는 음차 표기된 것으로 보이나 '矣'자가 일반적으로는 차자표기 자료에서 '딴'로 읽히고 극히 드물게 '의'로 읽힌다는 점과는 거리가 있다. '有阿米(유아미)'는 '이시(동사 어간) + 암(명사형어미) + 애(조사)'의 연속체 '이샤매'를 표기한 것으로서 '有'는 훈차 표기를, 나머지 두 글자는 음차 표기를 하였다. '米'를 대개는 원인을 뜻하는 연결 어미로 파악해오나, 적어도 근대국어 이전에 나온 한글 문헌에서는 '-매'가 연결 어미로 쓰이지 않았고, 근대국어 단계에서 명사형 어미 '-음'과 조사 '-애'의 통합체가 변화한 '-으매'가 연결 어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암'에 해당하는 것이 명사형 어미로 사용되었음이 특이하다. 신라시대 이두자료에서 '牙(아)'로 훈차 표기되었던 명사형 어미와 관련이 있다. 이와는 달리 '米'를 뒤의 동사 어형에 붙여 해독한 학자들도 많이 있고 그 자체를 의문 부사를 표기한 것으로 파악한 학자도 있다. '次盼伊遣(차힐이건)'은 동사의 활용형을 표기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동사의 활용형을 표기했느냐 하는 데에는 학자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모두 음차를 해서 '저히고', '저홀이고'로 해독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훈주음종의 방법에 따라 '멈호리건', '머못그리고', '아줄이고' 등으로 해독하는 사례도 있다. '遣'은 연결 어미 '-고'에 해당하나 어찌하여 음상이 '고'를 유지하는지는 확실히 밝혀진 바 없다. 이런 점에서 경주방언을 이용하여 연결 어미 '건'을 음차한 것으로 파악한 학자도 있다.

14. <보기>는 ㉠에서 언급한 '후대의 논리'에 대한 추가 자료이다.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으로 적절한 것은? (14)

보기

- ㉠ 현대의 경주 방언을 고려한다.
- ㉡ 당시와 현재의 한자음을 비교하여 해독한다.
- ㉢ 국어와 친족관계에 있는 인근 제어와 비교하며 해독한다.
- ㉣ 이두나 지명 혹은 조선시대의 옛 문헌에 담겨 있는 언어 자료에 의지한다.

- ① a, b ② a, d ③ b, c, d
- ④ a, b, d ⑤ a, c, d

15. ㉠을 고려하여 <자료>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5)

- ① 첫 두 글자를 해독할 때 훈주음종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일자일음의 원리가 실제 해독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 ③ 훈주음종의 방법에서 음독한 한자의 수와 해독된 음절의 수가 일치한다.
- ④ 향찰 해독 과정에서 현재 전하는 근대 국어의 표기들이 적극적으로 고려된다.
- ⑤ 향찰 해독에서는 연속된 한자를 어떻게 분절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꿈의 해석을 위한 의미 부여는 인간이 가진 아주 오래된 욕망이다. 어떤 이는 꿈을 황당무계하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현상으로 치부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꿈을 해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 나오는 요셉의 ‘이집트 파라오 꿈’ 해석을 들 수 있다.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꾸는 꿈은 이렇다.

일곱 마리의 살찐 황소가 나타난다. 뒤이어 일곱 마리의 마른 암소가 뒤쫓아 와 이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다. 그런데도 마른 암소의 몸은 그대로다.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자 요셉이 나서서 해몽한다. “일곱 마리는 7년을 뜻하고 살찐 암소는 풍년을 뜻한다. 같은 논리로 마른 암소는 흉년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꿈은, 7년간 풍년이 든 끝에 7년간 흉년이 들어 그동안 비축해 둔 물자를 모두 먹어치운다는 예언을 상징한다.”

물론 어떤 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데 정해진 지침은 없다. 해석의 성공 여부는 제지 있는 착상과 순간적인 직관에 달려 있는 듯 보이기도 한다. 만약, 꿈의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 발현되는지를 알 수 있다면 꿈의 해석은 훨씬 논리적이면서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자들은 꿈의 발생 원인을 자극에 따라 외적 감각 자극, 내적 감각 자극, 내적 신체 자극, 순수한 심리적 자극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인간의 감각기관은 매우 예민해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의 자극을 받으면 곧잘 깨어난다. 이러한 사실은 수면 중에도 우리의 정신은 외부세계와 부단히 결함돼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수면 중의 감각 자극이 충분히 꿈의 출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자극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강한 빛에 눈이 부실 수도 있고 시끄러운 소음을 들을 수도 있으며 강한 냄새로 코의 점막이 자극받을 수도 있다. 이불 밖으로 신체가 나오면 춥다고 느낄 수도 있으며 뒤척이다가 몸이 눌리면 압박감을 느낄 수도 있다. 파리가 달라붙거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동시에 여러 감각이 자극 받을 수도 있다. 꿈과 자극의 이러한 관계를 관찰한 사람들에 의하면, 자극과 꿈의 내용 중 일부가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는다.

꿈의 성질이나 유형에 비추어볼 때, 외적 감각 자극만으로 꿈의 출처를 설명하기가 충분치 않다고 본다면 우리는 꿈의 출처를 다른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내적 감각 자극에 주목하게 된다. 이 자극은 잠자는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극, 이를테면 배가 고프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하는 자극을 말하며 이것이 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이다. 내적 감각 자극은 외적 감각 자극과 달리 우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꿈을 해명함에 있어 외적 감각 자극은 그 역할을 증명하기가 용이한 반면, 내적 감각 자극은 그 실체를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롭거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다양한 연구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꿈에 미치는 내적 감각 자극의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①신체 내의 자극이 꿈의 출처가 될 수도 있다. 가령 병이 들었을 때 느끼는 고통스러운 같은 신체 내부의 자극이 있다. 이 자극은 신체 외부에서 오는 자극 인자와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깨어 있을 때보다는 꿈에서 더 발병의 징후를 깨닫는다고 말한 바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질병이나 장애는 꿈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은 심장이나 폐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주 짧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꿈이나 끔찍하게 죽는 꿈을 많이 꾸다. 폐 질환 환자들은 질식하거나 공지에 몰려 도망치는 꿈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꿈은 깨어 있을 동안의 자극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모든 꿈 연구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일상에서의 관심사는 꿈과 심리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때의 자극을 ㉡순수한 심리적 자극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본트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 꿈속의 환상을 순수한 환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꿈들은 낮 동안의 가벼운 인상에서 비롯된 환상일 수 있다. 이 견해를 받아들여지면 꿈의 일차적 원인은 감각 자극이며, 재현되는 연상이 그 뒤를 잇게 된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꿈에 신체 자극과 더불어 심리적 자극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동시에 어떤 현상의 일차적 동기가 심리적인 것에 있다는 인식으로 연구를 진척하다 보면, 그 심리적 원인이 신체 기관의 자극에서 유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궁극적으로 심리적 영향에 대한 분석이 꿈을 해명하는 데 있어 하나의 종작역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꿈을 ㉢꾸었다’고 해야 함에도 ‘꿈을 ㉣보았다’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이질적 표현은 꿈의 재료 때문만은 아니다. 꿈에서나 깨어 있을 때나 이 재료는 공통된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이질감은 꿈 특유의 심리학적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심리학자들은 정신 활동의 흔적을 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기억력이나 재현 능력과 관련해 어떤 면에서는 현실보다 꿈에서 더 우월한 능력을 보인다는 보고도 있다. 결국 의식을 통해서만 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꿈속에서도 의식이 유지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된다.

프로이드는 이러한 꿈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는

양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역설적으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며, 무의식 속에 가라앉았던 불안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히스테리성 공포증이나 강박관념 같은 정신병을 해명하고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신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환자를 치료하면서 꿈에는 해석 가능한 의미가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가 말한 꿈의 해석은 하나의 과학적 사건이었다. 20세기에 들어 아인슈타인이 과학적 인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면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구조를 인식하는 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정신은 의식의 집적물이라기 보다는 무의식의 텃밭이라는 것,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통제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빙산의 아랫부분처럼 우리 내면에 버티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는 무수한 심리 이론가들, 철학자들이나 과학자, 예술가들에게 하나의 방향타가 되기에 충분했다.

16. 뒷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16)

- ① 꿈은 무의식의 결과물로 현실적 소망을 반대로 드러낸다.
- ② 꿈의 이해를 통해 정신 활동이 지닌 특징을 찾을 수 있다.
- ③ 꿈은 일상의 자극과 심리적으로 연계된 관계를 맺고 있다.
- ④ 꿈을 상징적으로 해석할 때는 정해진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⑤ 일상적으로 기억하기 힘든 내용이 꿈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17.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꿈의 사례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17)

보기

어느 맑은 겨울날이다. 맑은 햇살을 받으며 수많은 나비와 새들이 하늘을 날고 있다. 거리에는 눈이 쌓여 있고 갑자기 부는 바람에 손과 발이 얼어버릴 듯 추운 날씨였지만 여러 사람들과 썰매를 타기로 약속했다. 한참을 기다리자 문 앞에는 썰매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온다. 문득 배가 아프다는 생각에 화장실로 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썰매가 곧 떠난다는 말을 듣고 곧장 썰매로 가서 앉았다. 그런데 썰매가 출발하기 전에 친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온다. 계속되는 벨소리에 나는 꿈을 깨고 만다. 머리맡에서는 계속 알람시계가 울고 있었다.

- ① 전날 배가 고픈 상태로 잠이 들었다면 꿈속에서 배가 아픈 현상은 내적 감각 자극의 결과이다.
- ② 꿈속의 전화 소리는 현실의 알람 소리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외적 감각 자극의 결과이다.
- ③ 실내 온도가 낮았고 손과 발이 이불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꿈속에서 몸이 얼어버리는 듯한 추위를 느낀 것이다.
- ④ 친한 친구에게 온 전화는 현실에서 느꼈던 강박관념이 잠든 시간에도 영향을 주어 꿈속에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이다.
- ⑤ 방안에 불을 켜 채 잠이 들었고, 불빛에 비친 먼지가 나비와 새의 환상을 만들었다면 외적 상황이 꿈꾸는 자의 감각을 자극한 결과이다.

18. [B]의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8)

- ① ㉠은 ㉡에 비해 발생 빈도가 높다.

- ② ㉠은 ㉡과 달리 공포감을 유발시킨다.
- ③ ㉡은 ㉠과 달리 낭만적인 성향이 강하다.
- ④ ㉠과 ㉡은 모두 꿈을 일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꿈이 현실에 비해 사소한 자극에 더욱 민감하다고 보고 있다.

19. <보기>는 ㉢과 관련된 ‘심리학 용어’의 설명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19) [3점]

보기

불안은 본능이 자아의 통제를 벗어나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때 생기는 것으로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불안은 불쾌한 정서 상태이므로 인간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때 보이는 무의식적 반응이 방어 기제이다. ‘기제’란 우리 행동에 영향을 주는 심리의 작용이나 원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한마디로 방어 기제는 일종의 자기 기만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 ① 갑돌이는 평소에 존경하던 선생님께서 수평평가 시간에 칭찬을 듣게 되었다. 그 후로 자신의 진로희망을 교사로 정했으며, 이를 계기로 성적이 계속 오르게 되었다.
- ② 을숙이는 같은 반에서 항상 1등을 하는 친구를 이겨야 한다는 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결과는 늘 반대였다. 그러다보니 친구를 괴롭히게 되었고 결국 심하게 싸우기까지 했다.
- ③ 병식은 같은 반 여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긴 후 이상하게도 자주 꿈속에서 상대방을 괴롭히곤 했다. 지속적으로 비슷한 꿈을 꾸었지만 현실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이 점점 더해지기만 했다.
- ④ 정숙이는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의 방송을 보다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험을 망치게 되었다. 이후 자신이 공부를 하지 않았음을 자책하고 괴로워했지만 같은 가수가 새 앨범을 발표하자 다시 음원을 내려 받았으며 즐거워했다.
- ⑤ 무협이는 교통사고 장면을 목격하고도 자동차 안에 있던 사람을 구조하지 못한 뒤 계속 자신이 다치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자신이 차로 다가갈 수도 없었다고 합리화를 한 뒤에는 비슷한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20. <보기>를 참고로 할 때, ㉣와 ㉤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20)

보기

꾸다1

활용 : 꾸어(꾸[꾸 :]), 꾸니

동사

「...을」(‘꿈’과 관련된 명사와 함께 쓰여) 꿈을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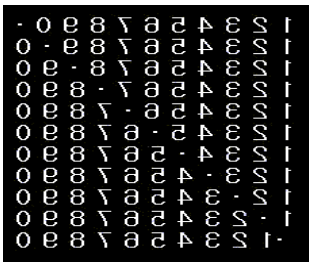
우리는 보통 ‘꿈’을 ‘꾸다.’고 말해야 하지만, 시각적 이미지가 강조된 꿈의 특성으로 인해 ‘보다’라는 말을 활용한다. 이에 따라 ‘꾸다’와 ‘보다’는 문맥에 따라 유의어의 관계를 맺게 된다.

- ① 옷을 입다 / 옷을 벗다
- ② 밥을 먹다 / 밥을 드시다
- ③ 가방을 들다 / 가방을 매다
- ④ 신발을 신다 / 신발을 사다
- ⑤ 시험을 치르다 / 시험을 보다

27. <보기>의 화자(A)와 뒷글의 '프로이트'(B)가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1)

보기

오감도 시 제4호
환자(患者)의 용태(容態)에 관(關)한 문제(問題)



전단(謄單) 0 : 1 26. 10. 1931 이상(以上) 책임의사(責任醫士) 이상(李箱)

- ① A : 이 세상은 온통 정상적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어져 있어 보이니까요.
- ② B : 당신은 히스테리나 노이로제 등의 신경증으로 보이는 불안감을 숫자를 뒤집어 표현하고 있군요.
- ③ A : 그렇습니다. 제가 의사의 입장이 되어 보아도 우리의 현실은 언어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 ④ B : 제 생각에 당신은 무의식보다 더 넓고 체계적인 의식의 세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⑤ A : 저는 현대인의 불안감을 단지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숫자를 활용하여 관습에 대해 저항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패러다임으로 표현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조선시대 문학을 대표하는 국문시가 양식 중 하나인 가사는 시조와 더불어 조선시대의 시가 문학의 쌍벽을 이룬다. 가사란, 경기체가와 봉곡과 조선 초 시조의 본격적인 창작 과정에서 생겨난 운문으로서 4음보격을 기준 율격으로 할 뿐 행에 제한을 두지 않는 연속체 운문 형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내용이 다분히 산문적이라 가사는 운문과 산문이라는 중간적 존재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가사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개인적인 정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교훈적인 훈계, 여정의 체험과 감상 등 다양한 주제를 담아내면서 조선 시대의 문학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의 가사는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하는 군자의 미덕과 군신간

의 충의를 넘너 간의 애정에 비유한 것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초로 나타난 가사 문학은 성종 때 정극인이 지은 '상춘곡'으로 자연에 묻혀 강호환정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러한 가사의 흐름은 송순의 '면앙정가'와 백광홍의 '관서별곡' 등을 거쳐 정철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에 이르러 절정을 이룬다. 특히 조선 가사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정철이 창평에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유배가사로 조선시대 사대부라는 관료사회에서 정치적인 진퇴를 숙명적으로 반복한 계층의 정치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 현실을 바탕으로 사대부의 갈등을 읊은 가사들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연군가사와 정치적 패배로 인해서 유배를 당하여 유배지에서 고난의 생활상을 기술하면서 우국지정을 토로한 유배가사가 있다.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연군가사의 정점으로 보는 것은 선조(1588년)에 대한 충의 사상을, 여성으로서 남성인 '님'을 그리워하는 연정시의 화자로 완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허구적 여성 화자와 남성적 대상인 '님'을 설정한 문학적 의미를 작품에서 분석해 보면 '사미인곡'은 과거에는 있지만 현재에는 없고, 미래에도 기대할 수 없는 간절한 '님'이자 임금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에 비해 영조(1755년) 당시 유배를 당한 이광명의 '북찬가'는 일반적인 조선의 연군가사 혹은 유배가사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 특징이다. 이광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백부의 역모 죄에 연루되어 무고하게 유배를 당했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유배지에서 늙으신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는 개인적인 효심에 초점을 둔 작품이다. 체목에서도 유배를 간 것이라기보다는 '북쪽에 은둔하다. 숨어 버리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조선 시대 사대부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되어 전개된 가사 문학은 형식의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해 후기에 이르러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더욱 다양한 문학적 변형을 이루다가 쇠퇴하였다.

(나)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어라. 가뜰 냉담한데 암향(暗香)은 무슨 일고. 황혼에 달이 쫓아 베개 밑에 비치니 호느끼는 듯 반기는 듯 임이신가 아니신가. 저 매화 꺾어 내어 임 계신데 보내고져.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꼬.

꽃 지고 새 잎 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나위(羅幃) 적막하고 수막(繡幕)이 비어 있다. 부용(芙蓉)을 걷어 놓고 공작(孔雀)을 둘러 두니 가뜰 시름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고. 원앙금(鴛鴦錦) 베어 놓고 오색선 풀내어 금자에 겨누어서 임의 옷 지어내니 수품(手品)은 물론이고 제도(制度)도 갖추시고. 산호수 지게 위에 백옥함에 담아 두고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데 바라보니 산인가 구름인가 험하기도 험하구나. 천리만리 길에 뉘라서 찾아갈꼬. 가거든 열어 두고 나인가 반기실까.

하룻밤 서리 기운에 기러기 울어 엘 제 위루(危樓)에 혼자 올라 수정렴(水晶簾) 걷으니 동산에 달이 나고 북극에 별이 뵈니 임이신

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청광(淸光)을 귀어내어 봉황루(鳳凰樓)에 부치고저. 누 위에 걸터 두고 팔황(八荒)에 다 비추어 심산궁곡(深山窮谷) 한낫같이 만드소서.

건곤이 얼어붙어 백설이 한 빛인 때 사람은 물론이고 나는 새도 그쳐 있다. 소상남반(蕭湘南畔)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루고쳐(玉樓高處)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양춘(陽春)을 부쳐내어 임 계신 데 쏘이고저.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저. 홍상(紅裳)을 여며 입고 푸른 소매 반만 걷어 해 저문 대나무에 생각도 많고 많다. 짧은 해 쉬이 지고 긴 밤을 곳곳이 앉아 청등 걸어 둔 곁에 공후를 놓아 두고 꿈에나 임을 보려 턱 받치고 기대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사 이 밤은 언제 셀꼬.

- 정철, 「사미인곡」 -

(다)

앓은 곳에 해가 지고 누운 자리 밤을 새워
잠든 밧기 한숨이오 한숨 끝에 눈물일세
밤밤마다 꿈에 뵈니 꿈을 둘너 상시과저*
학발자안* 못 뵈거든 안죽서신* 잣아짐에
기다린들 기별 올까 오로라면 달이 넘네
못 본 제는 기다리나 보게 되면 시원할까
노친 소식 나 모를 제 내 소식 노친 알까
산과 강물 막힌 길에 일반고사* 뉘 헤울고
문노라 밝은 달아 두 곳에 비추는가
따르고저 뜨는 구름 남천(南天)으로 달는구나
흐르는 내가 되어 집 앞에 두르고저
나는 듯 새나 되어 창가에 가 노닐고저
내 마음 헤아리려 하니 노친 정사(情思) 일러 무 삼
여의 잃은 용이오 키 없는 배 아닌가
추풍의 낙엽같이 어드메 가 머무를꼬

*꿈을 둘너 상시과저:꿈을 가져다 현실로 삼고 싶구나.

*학발자안:머리가 하얗게 쉰 자애로운 얼굴. 어머니를 가리킴.

*안죽서신:기러기 발목에 매달아 보낸 편지.

*일반고사:괴롭거나 고통스러운 모든 생각.

- 이광명 '복판가' -

22. (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22)

- ① 조선시대 시가 문학은 사대부들의 현실적인 삶을 반영한다.
- ② 가사는 갈래적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갈래였다.
- ③ 연군가사는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 ④ 유배가사는 사대부들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숨겨진 야망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 ⑤ 연군가사와 유배가사는 자연 속에서 풍류보다는 개인의 절절한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

23. (가)를 읽고 (나)와 (다)를 이해한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23)

- ① (나)와 (다)의 화자는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다)의 화자는 유배라는 현실 속에서 절망하고 있으며, 그 상황을 타자에 의해 극복하고 있다.
- ③ (나)와 (다)의 화자는 정치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그 상황에서 연군지정과 우국지정을 잊지 않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다)는 정치 현실을 직접 드러내고 있으며,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회한을 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다)와 달리 (나)는 여성 화자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여성 화자의 정서를 통하여 체념의 한을 드러내고 있다.

24. (나)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4)

- ① 계절의 흐름을 바탕으로 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일상적인 소재를 열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4음보 연속체를 바탕으로 선경후정 전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스스로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⑤ 친숙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을 환기하고 있다.

25. (나)와 (다)의 시어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5)[3점]

- ① (나)의 '달'과 (다)의 '달'은 화자가 간절히 그리워하는 대상을 투영시킨 소재이다.
- ② (나)의 '산'과 (다)의 '산'은 화자가 원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상황을 투영시킨 소재이다.
- ③ (나)의 '청광'과 (다)의 '밝은 달'은 화자가 원하는 대상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으로 화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 ④ (나)의 '새'는 화자와 대상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다)의 '새'는 화자의 소망의 절실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나)의 '소상남반'은 화자가 처해 있는 곳이고 (다)의 '남천'은 화자가 원하는 대상이 있는 곳이다.

[26~28]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봉봉 위이잉’ 벌 소리를 내며 하늘을 나는 드론. 이 비행음은 드론(Drone)의 어원이기도 하다. 드론은 인간 조종사가 타지 않고 원격 조종 또는 비행체 자체의 자율 조종 모드로 설계된 항공기를 일컫는다. 드론은 사진·영상, 배달, 측량, 감시 등, 기존 산업계와 어우러져 다양하게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다. 따라서 드론의 한계와 적용 가능 영역을 알려면 우선 드론의 비행 원리와 관련 장치를 살펴보도록 하자.

일반적인 비행기는 '양력'으로 공중에 뜨고 '추진력'으로 나아간다. 비행기의 양력은 고정된 날개에서, 추진력은 프로펠러나 제트 엔진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부분의 드론은 여러 개의 프로펠러 동작을 조합해 양력과 추진력을 만든다.

드론은 프로펠러 개수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쿼드콥터는 네개, 헥사콥터는 여섯개, 옥타콥터는 여덟개의 프로펠러로 비행을 한다.

이 중 근래에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쿼드콥터이다. 쿼드콥터는 4개의 프로펠러가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쌍끼리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한 쌍의 프로펠러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 다른 쌍의 프로펠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식이다.

드론이 날아오를 때 프로펠러가 모두 같은 힘으로 움직여 아래 방향으로 내쫓는 바람을 만든다. 이 바람의 힘이 드론의 무게를 이겨내면 드론이 떠오른다. 착륙 시에는 프로펠러 회전 수를 조절해 바람의 힘을 조금씩 줄이면 드론의 무게로 인해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는 방향의 프로펠러 짝은 약하게, 뒤 방향 프로펠러 짝은 강하게 회전한다. 뒤 방향에서 더 큰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드론을 앞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반대로 후진할 때 앞 방향 프로펠러 짝은 강하게, 뒤 방향 프로펠러 짝은 약하게 돌아간다. 프로펠러의 강약을 조절하면 바람의 세기에 따라 드론의 전, 후진 속도가 바뀐다.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비행할 때 오른쪽 프로펠러 짝이, 오른쪽으로 비행할 때 왼쪽 프로펠러 짝이 더 약하게 돌아간다. 간단히 말해서, 드론은 프로펠러가 강하게 회전해 더 강한 바람을 만드는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그렇다면, 제자리 회전은 어떻게 할까? 이 경우는 프로펠러 짝이 전후좌우가 아니라 대각선으로만 들어진다. 대각선 방향 프로펠러 짝이 더 강하게 도는 방향으로 드론이 제자리 회전을 한다. 오른쪽으로 도는 프로펠러가 약하면, 힘이 더 센 왼쪽으로 도는 프로펠러의 방향에 따라 왼쪽으로 회전하게 된다.

한편 드론에는 안정성 향상을 위한 각종 센서가 쓰인다. 바닥이나 옆면의 사진을 촬영해 장애물을 파악하는 비전 센서, 초음파로 장애물과 고도를 측정해 비행에 활용하는 초음파 센서, 기압을 활용해 드론의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압 센서도 있다.

이들 기능은 편리하지만, 한계가 있어 드론의 안정성을 완전히 확보하지는 못한다. 비전 센서는 전선이나 나뭇잎 등 얇고 작은 장애물은 감지하지 못하며, 초음파 센서는 정확하지만, 음파가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금속면, 강이나 바다 등에서는 오작동 할 수 있다.

26.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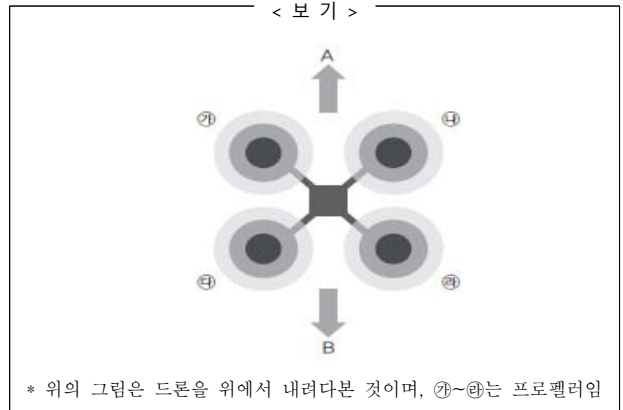
- 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 ②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화제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 ③ 유추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다른 대상과의 대비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 ⑤ 질문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7.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27)

- ① 쿼드콥터의 경우 프로펠러의 강약 조절을 통해 비행 방향을 결정한다.
- ② 일반적 비행기와 달리 드론은 양력을 만드는 고정된 날개가 없다.
- ③ 드론의 명칭은 프로펠러의 개수를 기준으로 다양하게 분류된다.
- ④ 드론에 장착된 초음파 센서는 부정확하여 오작동의 한계가 있다.

⑤ 드론의 명칭은 드론의 비행음에서 유래 되었다.

28.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8) [3점]



- ① 프로펠러가 모두 같은 힘으로 돌고, 그 힘이 드론의 무게를 이겨내게 되면 이륙한다.
- ② A방향으로 갈 때 ㉓와 ㉔가, B방향으로 갈 때 앞쪽 ㉒와 ㉕가 강하게 회전해 더 센바람을 만들며, 이 바람이 추진력을 만든다.
- ③ 제자리 회전 시에는 프로펠러 짝이 대각선으로 바뀐다.
- ④ ㉒와 ㉕가 더 세게 돌면 드론은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 ⑤ 4개의 프로펠러가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쌍끼리는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은 늘 고정되어 있다.

[29~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초사촌날, 기증 봄비지 않을 듯싶던 열차로 가려 탄 것이 불찰이라 하게 피곤하고도 고달픈 고향길이었다. 한내읍에 닿았을 때는 이미 세 시도 겨워 머잖아 해거름을 만나게 될 그런 어름이었다. 열차가 한내읍 머리맡이기도 한 갈머리[冠村部落] 모퉁이를 돌아설 즈음엔 차창에 빗방울까지 그어지고 있었다. 예년에 없던 폭한* 날씨가 눈을 비로 뿌리던 모양이었다. 겨울비를 맞으며 고향을 찾아보기도 난생처음인 데다 ㉠정 두고 떠났던 옛 산천들이 돌아보이자, 나는 설레기 시작한 가슴을 부질할 길이 없었다.*

나는 한동안 두 눈을 지릅뜨고 빗발 무늬가 찾아 가던 창가에 서서, 뒷동산 부엉재를 감싸며 돌아가는 갈머리 부락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음이 들뜬 것과는 별도로 정말 썰렁하고 울적한 기분이었다. 내 살과 뼈가 여문 마을이었건만, 옛 모습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것이다. 옛 모습으로 남아난 것 이 저토록 귀할 수 있을까.

㉢그중에서도 맨 먼저 가슴을 후려친 것은 왕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사실이였다. 분명 왕소나무가 서 있던 자리엔 외양간만 한 슬레이트 지붕의 구멍가게 굴뚝만이 꼴불견으로 뻗쭈러 서 있던 것이다.

그 왕소나무 일대에 누렁물이 들고 가지에 삭정이가 끼는 걸 보며 고향을 뜨고 십삼 년 만이니 그럴 만도 하겠다 싶긴 했지만, 언

제 베어다 커 썼는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은 현장을 목격하니 오장에서 부레가 끓어오르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사백여 년에 걸친 그 허구한 풍상을 다 부대껴 내고도 어느 술보다 푸르던, 심장생의 으름다운 풍모로 마을을 지켜 온 왕소나무가 아니었던가. 내가 일곱 살 나 천자문을 떼고 책씻이*도 마친 어느 여름날 해 설편* 석양으로 잊지 않고 있지만, 나는 갯가 제방 독까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온 마을을 쓸어 삼킬 듯이 쳐들어오던 바다 밀물을 구경한 적이 있었다. 댕기물떼새와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석양 놀에 가득 떠 있던 눈부신 바다를 구경했던 것이다. 방과제 곁으로 장항선 철로가 끝 간 데 없고, 철로와 나란히 자갈마다 뾰얀 신작로는 모퉁이를 돌았는데, ㉔ 왕소나무는 철로와 신작로가 가장 가까이로 다가선, 잡목 한 그루 없이 잔디만 펼쳐진 평평잡한 버딩* 위에서 사백여 년이나 버티어 왔던 것이다.

그날 할아버지는 장정 두 팔로 꼭 네 아름이라던 왕소나무 밑동을 조심스레 아무만지면서,

“이 애야, 이 왕술은 토정(土亭: 李之藹) 할아버지께서 짚고 가시던 지팡이를 꽂아 놓셨는데 이냥 자란 계란다. 그쪽에 그 할아버지 말씀은, 요 지팡이 앞으로 철마가 지나가거들랑 우리 한산 이씨 자손들은 이 고을에서 뜨야 허리라구 허셨다는 게여……. 그 말씀을 새겨들어 진작 타관살이를 했더라면 요로قم 모진 시상은 안 만났을 지두 모르는 것을…….”

하던 말을 나는 여태껏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왕소나무의 내력에 대해서 최초로 들은 지식이었다. 짚고 다니던 지팡이가 왕소나무로 되다니. 토정이 이인이며 기행이 많았았던 것은 토정비결을 보는 자리 옆에서 이따금 들었으므로, 할아버지가 외경스러워하던 모습이나 개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듯도 했지만, ㉕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런 구전된 전설 따위는 곧이듣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 왕소나무는 군내에선 겨울 데가 없던 백수(百樹)의 우두머리였고, 그 나무는 이제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나는 우리 가문의 선조 한 분이 그토록 우려하고 경계했다던, 그러나 이미 사십여 년 전부터 장항선 철로를 훔아 온 철마를 탄 몸으로 창가에 서서, 지호시간의 그 유적지를 비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완전히 타락한 동네구나— 나는 은연중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다. 마을의 주인(왕소나무)이 세상 뜬 지 오래라니 오죽해졌으랴 싶기도 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더욱이 피서지로 한몫 해 온 탓에, 해수욕장이 개장된 여름이면 밤낮 기적 소리가 잘 틈 없던 철로가에 서서, 그 술한 소음과 매연을 마시다 지쳐, 영물(靈物)의 예우도 내던지고 고사(枯死)해 버린 왕소나무의 운명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이 쓰리고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다. 물론 왕소나무의 비운에 대한 조상(弔喪)만으로 비감에 젖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사실이 그랬다. 내가 살았던 옛집의 주례한 주례꼴에 한결 더 가슴이 미어지는 비감으로 빠져려 하고 있었으니까. 비록 열댓 지나치는 차창 너머로 눈길에 온 것이긴 했지만, 간살이 넉넉한 열다섯 칸 짜리 꽃패집의 풍채는 커녕, 읍내 어디서라도 갈머리 쪽을 바라볼 적마다 온 마을의 종가(宗家)나 되는 양 한눈에 알겠던 집이 그렇게

변모할 수가 있을까 싶던 것이다. 그것은 왕소나무의 비운 비극으로 가슴을 저미는 아픔이었다. ㉖ 이제는 가로세로 들쭉날쭉, 꼴값하는 난봉 난 집들이 들어서며 마을을 어질러 놓아, 겨우 초가 안채 용마루만이 그럴듯할 뿐이었으며, 좌우에서 하늘 자락을 치켜들며 함석 지붕 날개와 담장을 뒤덮었던 담쟁이덩굴, 사철 푸르게 발마당의 방풍림으로 늘어섰던 들충나무의 가지런한 땀시 따위는 찾아볼 엄두도 못 내게 구차스러운 동네로 변해 버렸던 것이다.

㉗ 실향민. 나는 어느덧 실향민이 돼 버리고 말았다는 느낌을 덜어 버릴 수가 없었다. 고향이었잖아 무덤[墓] 밖 배에 남겨 둔 게 없던 터라 어차피 무심하게 여겨 온 셈이긴 했지만, 막상 퇴락해 버린 고향 풍경을 대하니, 나 자신이 그토록 처연하고 험박하며 외로울 수가 없던 것이다.

- 이문구, '관촌수필' -

* 폭한: 겨울 날씨가 꼭 따뜻한.

* 부접(附接)할 길이 없었다.: 한곳에 붙어 배기거나 견디어 내지 못하였다.

* 부레가 끓어오르지: 몹시 성나지.

* 책씻이: 글방 따위에서 학생이 책 한 권을 다 읽어 떼거나 다 베껴 쓰고 난 뒤에 선생과 동료들에게 한턱내는 일.

* 해 설편: 해의 밝은 빛이 약해진.

* 버딩: 높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이 풀만 우거진 거친 들.

(나)

제1막

[무대] 변화한 상가에 자리 잡은 최 노인의 낡은 기와집. 정면에 유리문이 달리고 마루를 사이에 두고 방이 둘 있고 좌편으로 기억 형으로 굽어서 부엌과 장독대 유리문 저쪽은 가게. 우편으로 대문을 끼고 헛간과 방 하나의 판채가 서너 평이 못 넘는 좁은 뜰을 에워싸고 웅크리고 앉았다. 해묵은 지붕에는 푸른 이끼며 잡초까지 자라나서 오랜 풍상을 겪어 내려온 이 집의 역사를 말해 주는 듯하다. 배경으로 면목이 일신해져 가는 매끈한 고층 건물의 행렬이 엿보이고 좌우편에도 역시 삼사 층이나 되어 보이는 최신식 건물이 들어서서 이 낡은 기와집을 거의 폐가처럼 멸시하고 있다. 좌편 건물은 아직도 건축 공사가 진척 중에 있는지 통나무로 엮어맨 작업 보조대에 거적페기가 걸려서 건물은 반쯤 가려진 채로다. 이처럼 대척적인 주변의 장에로 말미암아 이 낡은 집 안팎에는 온종일 햇볕이 안 드는 탓인지 한층 어둡고 습하며 음산한 공기가 찬바람처럼 풍겨 나온다. 때는 초여름 어느 일요일 오전. 막이 오르면 질주하는 전차며 자동차의 소음이 잇따라 들려온다. 뜰가에서 경운이가 함석 통에 담겨진 빨래를 빨고 있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이 보인다. 좌편 담 아래에 마련된 조그만 화단 앞엔 아까부터 최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서 화초며 푸성귀들을 손보고 있다. 입에 물린 파이프에서 이따금 뱉어지는 담배 연기가 한가롭다. 잠시 후 경제가 물지개를 지고 좁은 대문을 간신히 빠져나와 경운 앞애다 부러 놓는다.

경제: ㉘ 어유. 오늘은 웬 사람이 그리도 많아……. 공동 수도엔 난 장관인걸! (하며 향아리에다 물을 붓는다.)

경운: (여전히 빨래를 하며) 비가 개니까 집집마다 빨래하느라고
그렇겠지…….

경제: 아버지 우리도 다음엔 제발 물 흔한 집으로 옮기시다. 물만
길다가 내년 봄엔 낙제하게 생겼는걸요! 하루 이틀이 아니구…….

최 노인: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경운: 애도 속없는 소리 잘하긴 경제 언니 닮았나 봐! 누가 이따
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

경제: 살기 싫으면 판 데로 옮기면 될 걸 왜 이런 게딱지 굴속에
서 산다는 거요?

최 노인: (눈을 크게 부릅뜨며)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째서?

경제: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 노인: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야.

경제: (남은 물통을 비우며) 중도 없는 절을 뒀에 쓰게요? 도깨비
나 날걸…….

최 노인: (약간 핏대를 올리며)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제
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놈아!

경제: (못마땅한 낯으로)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죠.

최 노인: (획 돌아서며) 뭐 뭐야?

경운: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러 들며) 경제야, 한 번만 더 길어
와! 물이 끓어지면 어떡하려구…….

경제: 또야? 나 시간 약속이 있는데…….

경운: (홀려보며) 너 그러면 나와 약속한 일 국물도 없다!

경제: (짜증을 내며) 정식이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했는
걸……. 9시 40분까지 가야 돼요.

어머니: ㉡(설거지통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바쁘면 어서 가려
무나, 설거지가 끝나면 내가 길을 테니…….

경제: (필쩍 뛰며) 엄마가 제일야! 우리 엄마가 넘버원이지! 그 대
신 내일 아침엔 식전에 다섯 지게 길을게요, 어머니!

어머니: (웃으며) 그럼 물 향아리를 더 사 놔야겠구나……. (하며
수챗구멍에다 물을 버린다.)

경제: (손을 씻으며) 향아릿값은 우리의 재무 장관인 작은누나가
치르구 핫하……. (하며 아랫방으로 퇴장)

경운: 각쟁이! (빨래를 짜며) 어머니가 어떻게 물을 길으신다구 그
러세요! 아직도 허리를 쓰시기가 거북하시다면……. (방 안에서
휘파람 소리가 흘러온다.)

어머니: 팬찮아…….

최 노인: 참 그 고약은 다 붙었어?

어머니: 예. (허리를 가볍게 치며)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최 노인: 뭐니 뭐니 해도 그 강 약방의 처방이 제일이야! 내 청이
라면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 있게 약을 써주거든!

어머니: 하기가 이 동리에서 옛부터 사귀어 온 집은 이제 그 강
약방하구 우리 집뿐인걸요.

최 노인: 그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집에서 산 지가 꼭
사십칠 년이고 그 강 약방이 사십 년이 되니까……. 그러고 보면 나

도 무던히 오래 살았어……. 이 종로 바닥에서 자라서 장가들어 자
식 낳고 길러서 이제는 환갑을 맞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루 끝에 앉으며) 정말……. 근 오십 년 동안에 이웃 얼
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는 걸 보면 세상 변해 가는 모양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에게 시집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우리 이웃에 우리 집 담을 넘어서는 집이 있었던가요?

최 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들을 쏘아보
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어디 이랬소?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
테요…….

최 노인: 변하는 것도 좋구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세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경운: 왜요?

최 노인: 제깟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따위로 층층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
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경운: 피해라뇨?

최 노인: (화단 쪽을 가리키며) ㉣(저기 심어 놓은 화초며 고추 모
가 도무지 자라질 않는단 말이야! 아까도 들여다보니까 고추 모에서
꽃이 핀 지는 벌써 오래전인데 열매가 열리지 않잖아! 이상하다 하
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멧없는 것이 좌우로 탁 들어 막아서 햇볕을
가렸으니 어디 자라날 재간이 있어야지! 이리다간 땅에서 풀도 안
나는 세상이 될 게다, 말세야 말세! ㉤(이때 경제 책보를 차려입고
책을 들고 나와서 신을 신다가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는 깔깔대고
웃는다.)

경제: 원 아버지두…….

최 노인: 이놈아, 뭐가 우스워?

경제: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며 집을 짓는 사람
이 어디 있어요?

최 노인: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

- 차범석, '불모지' 중에서 -

2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29)

- ① 역순행적 구성을 이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대화와 독백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비되는 작품의 배경을 이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
다.

30. ㉠과 ㉡,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0)

- ① ㉠은 인물에게 ㉢라고 느낄 수 있게 된 정서 촉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는 인물에게 ㉤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객관적 증거의 상황이

라고 볼 수 있다.

- ③ ㉠과 ㉡는 인물이 고향을 찾아가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 ④ ㉢과 ㉣는 인물이 다른 인물과 갈등하게 되는 매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⑤ ㉠은 ㉡로 연결되어 인물 내면의 혼란스러움이 정리되고, ㉢은 ㉣로 연결되어 인물의 외적 갈등이 강화된다.

31. <보기>를 고려하여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1)

보기

작품을 비평한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자기의 관점에 따라 작품을 바라보는 일이다. 관점이란 쉽게 말한다면 ‘소설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점은 매우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비평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매우 영향력 있는 몇몇 관점들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들 중에서 ‘소설은 풍속(風俗)의 재현(再現)’이라는 관점을 취하면 외적인 정보를 끌어들이어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 ① (가)는 ‘수필’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성장했던 고향에서의 삶을 담담한 회상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② (가)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마을의 세태를 다각도로 묘사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③ (가)는 작가가 왕소나무와 함께 할아버지를 연상하여 전개하면서 조상의 열과 민족 전통의 상실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나)는 무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시대의 흐름에 갈등하는 인물의 군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현대적인 고층건물과 넓은 고육을 극중 배경으로 드러내어 새로운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32. (가)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2)

- ① ㉠ ‘나’는 변함없는 옛 산천의 모습을 보자 고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라 볼 수 있다.
- ② ㉡ ‘나’는 열린 창가에서 바라본 부락의 모습에서 기대했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 ③ ㉢ 새로운 문명이 들어왔어도 버티고 있었던 과거의 왕소나무의 모습은 ‘나’에게 울분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 ④ ㉣ 어린 시절 ‘나’는 할아버지가 말하려고 했던 전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 않았다.
- ⑤ ㉣ 마구잡이 질서 없이 들어선 집들로 인한 마을의 모습에 대하여 못마땅해하는 ‘나’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33. (나)를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는 희곡의 특성을 고려할 때 ㉡~㉣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3) [3점]

- ① ㉡ 극의 시작을 알리는 동선의 시작으로 무대 가운데 공간에 있는 다른 인물 옆으로 이동한다.

- ② ㉢ 사건 상 진행되고 있는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추가적 동선을 요구한다.
- ③ ㉣ 외양과 분위기로만 제시되던 인물이 동선이 시작되면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 ④ ㉣ 인물의 비언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강조하여 표현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 ⑤ ㉣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선 변화와 함께 인물에 대한 연출이 바뀌고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젊은 줄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짚베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섀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뻐 것도 없는
사철 발 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하늘에는 성근 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짖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는 곳,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

(나) 꽃이 지기로소니

바람을 탓하라.

주렴 밖에 성긴* 별이

하나 둘 스러지고

귀촉도 울음 뒤에

머언 산이 다가서다.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지는 그림자
뜰에 어리어

하이얀 미닫이가
우련* 붙어라.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허하노니*

꽃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 * 성긴 : 드문드문한.
* 우련 : 보일 듯 말 듯 은은하게.
* 저허하노니 : 두려워하노니. 마음에 꺼려 하노니.

(다) 꽃잎이여 그대
다토아 피어
비 바람에 뒤설레며
가는 가냘픈 살갗이여.

그대 눈길의
머언 여로(旅路)에
하늘과 구름
혼자 그리워
붙어져 가노니

저문산 길가에 저
뒤등글지라도
마냥 붉게 타다 가는
환한 목숨이여.

- 조지훈, 「낙화」 -

- 신석초, 「꽃잎 절귀」 -

34. (가) ~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4)

- ① (가) : 다양한 성격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서정성이 느껴진다.
- ② (가) : 동일한 시행과 설의적 표현을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느껴진다.
- ③ (나) : 지는 꽃을 바라보는 서글픔을 차분하게 노래하여 쓸쓸한 정서가 느껴진다.
- ④ (다) : 구체적인 청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 대상에 대한 감탄과 예찬이 느껴진다.
- ⑤ (가), (나), (다) : 자연을 통해 깨달은 삶의 가치를 노래하여 교훈과 감동이 동시에 느껴진다.

35. <보기>는 (가)의 시인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평가이다. <보기>를 참고로 하여 (가)에 관해 주고받은 학생들의 말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5)

보 기

- ㉠ 말의 비밀을 알고 말을 휘잡아 조정하고 구사하는 데 놀라운 재주를 가진 천재 시인.
- ㉡ 감정에 치우치는 표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대상을 표현한 시인 중의 시인.
- ㉢ 감각이 누구보다도 예민하여 일대 감각의 향연을 드러낸 시인.

- ① 강희: ㉠의 평가가 눈에 들어왔어. 아름답고 참신한 인상을 주는 시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다듬어 사용하고 있거든.
- ② 호재: ㉡과 ㉢의 평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화로운 정경과 그리움의 정서가 오히려 드러나거든.
- ③ 준영: ㉢에 언급된 '감각의 향연'이라는 말에 공감이 돼.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리듬감이 드러나서 음악성이 강조되고 있거든.
- ④ 병길: ㉠과 ㉡의 평가에 주목하게 돼. 감정을 배제하였지만 오히려 초라하면서도 고단하지만 정겨운 가족과 그들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거든.
- ⑤ 지영: ㉢에 드러난 '예민한 감각'이라는 말은 '금빛 게으른 울음'이라든지 '비인 발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와 같은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

36. <보기>는 (나)의 시인이 같은 제목으로 나중에 쓴 작품이다. <보기>를 창작한 시인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6) [3점]

보 기

피었다 몰래 지는
고운 마음을

흰무리 쓴 촛불이
홀로 아노니

꽃 지는 소리
하도 가늘어

귀기울여 듣기에도
조심스러라
두견(杜鵑)이도 한목청
울고 지친 밤

나 혼자만 잠들기
못내 설어라

- ① 감탄형 어미는 그대로 사용하여 본래 작품이 주는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 ②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했던 내용을 청각적 이미지로 바꿔 표현하고 있다.

- ③ ‘밤부터 아침까지였던’ 시간적 배경을 ‘밤’으로 한정하여 화자가 느끼는 쓸쓸한 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④ ‘고운 마음’의 주체를 ‘묻혀서 사는 이’에서 ‘꽃’으로 바꾸어 화자와 시적 대상이 하나가 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꽃’의 심정을 알아주는 대상으로 ‘촛불’을 그대로 유지하여 화자와 촛불이 대립관계에 놓여 있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37)

보기

이 시는 신석초가 죽기 삼 년 전에 발표한 시이다. 때문에 인생에 대한 그의 동양적 허무사상이 완숙되어 나타난 시로 볼 수 있다. 이 시에서 느껴지는 허무는 절망이 아니라 황홀함까지 느끼게 해 주는 허무이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뒤돌아보면 언제나 짧고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나 죽음은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것일 뿐이라는 노장사상에 힘입어 허무를 극복하고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 ① 아름답기 때문에 단명한 꽃잎 속에서 삶의 허무와 그로인한 괴로움을 그려내고 있다.
- ② 이상과 현실의 괴리와 그로 인한 괴로움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어 역설적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 ③ 가냘픈 존재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도태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④ 꽃이 피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혼자 꿈꾸고 그리워하며 살다가 황홀한 모습으로 떨어져 자연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⑤ 짧은 생애이지만 정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모든 생물에는 생명 활동을 주관하는 기본틀이 있는데, 이것을 만들어 내는 정보가 바로 DNA이다. DNA는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라고 표시되는 네 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 물질인 네 가지 염기는 짝을 이루어 쇠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 연결된 염기 중 일부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 내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이다. 인간의 DNA는 30억 쌍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안에는 3~4만 종류의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는 일정한 순서의 염기 서열을 가졌으며, 이 순서에 따라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 염기 순서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다.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DNA의 염기 순서 99.9%가 내게 전달되며, 내 DNA의 염기 순서 또한 대부분 그대로 내 자식에게 전달된다. 각종 동식물, 세균과 같은 미생물이 그들만의 특징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선조에게 거의 비슷한 염기 서열로 된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이다. 내가 부모와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듯이 내 자식 또한 나와 비슷한 체형과 성격을 갖게 된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나와 비슷한 운명을 가질 거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생물학에서는 모든 유전자 정보의 활용도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진다고 본다. 즉, 일정한 염기 서열로 되어 있는 DNA가 유전자라고 할 때 그 서열은 이미 선조 때부터 대부분 고정되어 자손에게 물려 내려오고 있으므로, 운명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서열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것이 다시 단백질을 만든다. 다시 말해 유전자 정보가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고, 이것이 생체 내에서 주어진 기능을 하여 생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 효소 반응, 신경 전달, 인지 등과 같은 일들을 수행한다. 이미 서열에 따라 결정된 기능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서열의 일부가 잘못되어 빠지거나, 없던 서열이 삽입되면 DNA 정보의 차이가 생기고, 이에 따라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져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단백질 기능에 차이가 생겨 원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심할 경우 다른 성질을 가진 세포 기능이 나오게 된다. 소위 돌연변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유전자가 제 기능을 하려면 유전자 안에 있는 서열 정보에 단백질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어 유전자를 작동시켜야 한다. 이것을 조절하는 인자가 잘 작동하면 염기 서열이 일부 바뀌면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단백질이 나오게 된다. 이때 만들어진 단백질의 기능이 세포의 생사를 좌우하는 유전자일 경우에는 죽고 사는 경우가 달라진다. 다시 말해 물려받은 유전자가 변하면, 다른 특성과 운명을 가진 내가 된다. 유전자의 DNA의 서열은 끊임없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의 세포는 증식 분열하는데 이때 DNA는 똑같이 두 개로 복제되어 두 세포로 나뉜다. 이때 대부분의 DNA는 똑같이 복제되지만, 일부는 제대로 복제되지 못하고 변하여 조금씩 다른 DNA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DNA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 그대로 복제되기도 하고 변화된 형태로 복제되기도 하다. 그러므로 DNA가 복제될 때 처한 환경에 따라 이 변화는 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유전자가 각 개체를 만드는 기본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이 유전자가 제때에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유전자가 처한 당시의 환경적 자극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유전자 자체가 운명을 지배한다기보다는 유전자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받아 작동하는지에 따라 개체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전자가 정해진 염기서열에 따라 정해진 기능을 하는 단백질을 만드는 기본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는 필요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항상 만드는 단백질이 있고 필요시에만 만드는 단백질도 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매우 경제적으로 유전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구에 따라 유전자를 작동시킨다. 자극은 유전자를 움직이는 주된 요소이다.

우리의 유전자는 선천적으로 물려받은 것이지만 이를 활성화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유전자를 작동시키는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신다면 습관적으로 알코올을 분해할 일이 많아 평소에는 작동하지 않는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효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이런 사람은 다량의 알코올 분해 효소가 늘 몸속에 있기 때문에 간에 부담을 주고 간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음식을 비롯해 우리 몸에 독소가 되는 물질을 해독하는 간이 약해지면 바이러스 같은 감염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어 쉽게 병에 걸린다. 이렇게 되면 간 기능 약화로 병을 얻게 되는데,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도 간에 부담을 주는 물질을 많이 만드는 환경에 있었던 사람은 더 빨리 간질환에 걸려 죽게 된다. 생사의 운명은 이렇게 우리 몸속의 유전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습관을 가졌는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그 유전자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원래의 유전자 정보를 100%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 생각지도 못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고, 나의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조건에 처할 수도 있다. 다양한 생활 방식에 따라 유전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운명은 유전자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 적절한 유전자 기능을 유도하고 최적 시기에 유전자 본래 기능을 수행하게 만든다면 유전자가 우리의 운명을 원천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간에게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바로 유전자의 기능을 잘 끌어내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처를 하는 지혜가 있다는 말이다. 인간에게 무한 도전의 세계가 가능한 것은 생명체 안에 존재하는 유전자 정보를 잘 활용하여 그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39] 다음은 독서 지도를 위한 활동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독서 지도 활동지>

- 과학 분야 글 읽기 -

제목 : 유전자는 운명을 지배하는가

1) 읽기 전 활동

- 이 글의 제목과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만들어보자
- ㉠ 유전자란 무엇인가?
- ㉡ 유전자는 우리의 몸에 어디에 존재하는가?
- ㉢ 부모와 자식과의 유전은 무엇으로 전달되는가?
- ㉣ 유전자와 운명은 과학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가?
- ㉤ 유전자는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읽기 중 활동

- 과학 분야의 글의 특성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 ㉠ 구체적인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지시한다.
- ㉡ 수많은 선행 연구와 실험의 결과를 기초로 삼고 있다.
- ㉢ 계량화 수량화된 정보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드러낸다.
- ㉣ 합리적인 추론에 따른 의견이 제시되기도 한다.
- ㉤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정에 따른 서술을 하고 있다.

38. '1)읽기 전 활동'의 답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38)

- ① ㉠ 염기 서열 정보에 따라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물질
- ② ㉡ 화학 물질인 네 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DNA 안에 존재함
- ③ ㉢ 부모의 DNA의 염기 순서가 자식 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
- ④ ㉣ 유전자 정보 안에서 주어진 대로 살다고 죽는 것을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음
- ⑤ ㉤ 유전자 정보를 인간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인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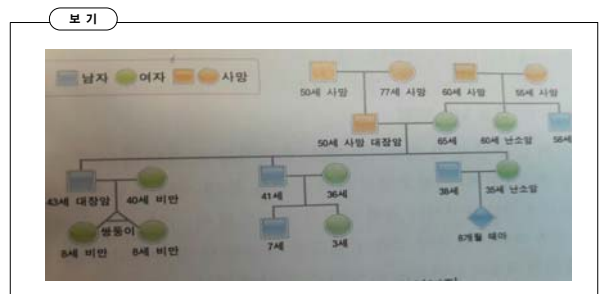
39. '2)읽기 중 활동' 중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39)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40.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0)

- ① DNA가 두 개로 복제될 때 똑같이 복제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 ②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조절 인자인 단백질이 적절한 때에 만들어지지 않아서이다.
- ③ 유전자 서열이 일치할수록 환경과 자극보다는 유전자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④ 유전자는 선천적이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은 후천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다.
- ⑤ 유전자와 환경을 잘 파악하여 유전자 기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4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41)



- ① 이 가족의 3대의 유전자 정보에는 남자는 대장암이 여자는 난소암이 고정되어 물려 내려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1대에 할머니의 유전자 정보를 보면 유전자 서열은 물려 내려왔더라도 환경과 자극에 따라 여자 자매의 질병 발현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 ③ 2대에 남자 자식 중 대장암의 발병이 50%인 것은 유전자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 ④ 3대에 여자 쌍둥이는 둘 다 비만의 형질을 가지고 후천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집안 내력인 유전적 질병이 발현될 것이다.
- ⑤ 3대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성별의 결정이나 유전자 정보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족 내력의 질병을 예측할 수 없다.

42. <보기>는 어느 단편 소설의 줄거리이다. 밑글의 글쓴이의 의견과 관련지어 작품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2)[3점]

보기

‘성기’의 외할아버지는 남사당패였고, 아버지는 떠돌이 중이다. 어머니 옥화는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하지만 그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러다가 체 장수 영감과 함께 ‘계연’이 주막에 나타난다. 성기는 계연을 사랑하게 되고, 둘이 혼인해 정착해서 살 생각을 한다. 그러나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안 어머니가 둘을 떼에 놓자 성기는 앓아눕는다.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사정을 들은 성기는 옛장수가 되어 짐을 꾸려 유랑의 길을 나선다.

- 김동리 소설, ‘역마’ 줄거리-

- ① ‘성기’의 외할아버지가 남사당패였고 아버지가 떠돌이중이라는 점에서 ‘성기’의 운명의 대를 이어 이어지는 유전정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②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어머니 ‘옥화’는 인간의 삶은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성기’가 ‘계연’을 사랑하게 되는 상황은 주어진 운명이라는 삶보다는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 본연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④ ‘계연’이 ‘성기’의 이복동생임을 안 ‘옥화’의 반응은 결국 자신의 아들이 주어진 유전자 정보 안에서 정해진 삶을 살지 말고 환경을 통해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 ⑤ ‘성기’의 유랑의 길을 떠나는 사건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자극에 통해 본인이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 볼 수 있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비 윤영이 안평 대군의 옛 집인 수성궁 터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고, 꿈 속에서 윤영과 김 진사를 만나 그들로부터 지난 이야기를 듣는다. 윤영이 안평 대군의 궁녀로 들어와 지내던 중에 대군을 찾아와 시로 풍류를 즐기던 젊은 김 진사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윤영과 김 진사는 궁을 드나드는 무녀를 통해 몰래 편지를 주고받는 등 은밀하게 사랑을 나눈다. 김 진사는 윤영과 달아날 계획을 세우나 안평 대군에게 들키게 되고, 윤영은 자책감 때문에 목을 매어 자결한다. 윤영의 자결 소식을 들은 김 진사는 기절했다가 정신을 차린 후 윤영이 남긴 보화를 부처에게 바쳐 내세를 기약하려 한다.

그러나 특이는 절간에 올라가 삼일 간 엉덩이를 두드리며 누웠다가 승려를 불러 말했다.

“사십 석의 쌀을 어디다 쓰겠소? 불공에 다 바치겠는가? 오늘 술과 고기를 많이 장만하여 세속의 손들을 널리 불러 나누는 것이 좋겠소.”

마침 마을 여인이 지나갔는데, 특이가 강제로 겁탈했소. 절간에 머물면서 술안주를 갖추어 절탕하게 먹고, 수십 일이 지나도 설재(設齋)*의 뜻이 없으니 승려들이 모두 분노했소.

제삿날에 이르러 주지승이 말하기를,

“불공하는 것은 시주가 제일ियो. 시주가 그렇게 불결하게 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하니 냇가에 가서 목욕하고 정한 몸으로 예를 행함이 옳습니다.”

이 말에 특이도 할 수 없어 냇가에 가서 퐁당퐁당 몸을 담그고 들어와서 불전에 꿇어앉아 축원하였소.

“진사는 오늘 죽고, 윤영은 내일 다시 태어나 특이의 배우자가 되게 하여주소서.”

삼일 밤낮 발원한 것이 이것뿐이었소.

특이는 돌아와서 내게 말했다.

“윤영 각시는 반드시 살 방도를 얻을 것입니다. 설재(設齋)하던 날 밤 저의 꿈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지성으로 불공하여주니 감사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절하면서 우시었고, 사찰 승려들의 꿈도 모두 그러하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실성통곡하였소.

마침 백중일을 맞아 나는 과거시험에 뜻이 없었으나 공부를 힘썼소. 청녕사에 올라가 수 일간 체류하는데, 여러 승려에게 특이가 했던 바를 들었소. 다시금 분함을 이기지 못하였으나, 특이 없으니 어이하리오.

나는 목욕재계하고 불전에 나아가, 면배하여 이마를 바닥에 대고 분향하며 합장하고 축원하였소.

“윤영이 죽을 때의 말을 따라, 특이로 하여금 정성 드려 설재하여 저승에 다다르게 하기를 당부하였더니, 지금 특이의 축원한 말을 들으니 쾌락함이 지극하였습니다. 이로써 윤영의 유언은 다 헛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소자가 축원하오니, 윤영이 환생하게 하여 김생으로 하여금 후세에 이러한 원통함을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존이시여. 특이를 죽이여 철가(鐵枷)*를 입히시고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만약 세존께서 이 축원을 들어주시면 윤영은 비구니가 되어 손가락을 불사르고 십이 층의 금탑을 만들 것이고, 김생은 세 곳 큰 절을 지어 이 은혜를 갚겠나이다.”

축원을 마치고 분향을 백배하고 고두 백번하고 나왔소.

칠 일 후에, 특이는 함정에 떨어져 죽었소.

나는 이미 세상에 바람이 없어졌소. 목욕재계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평안한 방에 누워 먹지 않은지 사일 만에 깊은 탄식 일성을 남기고 다시 오지 못할 길을 향하여 가게 됐소.

⑧김진사는 여기까지 적고 붓을 던지고, 두 사람은 서로 붙들고 울며 자제하지 못한다. 류영은 그들을 위로하며

“두 분이 여기서 다시 만남은 지원한 정성 덕입니다. 원수 놈도 이미 제거하고 분함도 스러졌습니다. 왜 그리 비통하심을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 인간세상의 태어나지 못하여 한스럽습니까?”

김진사는 눈물을 거두며

“우리 두 사람은 모다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다. 명부를 맡은 이가 무죄함을 불쌍히 여겨, 우리를 인간 세상에 재생케 하고자 하나 지하의 즐거움이 인간의 즐거움에 못지않습니다. 하물며 천상에서 즐거움을 누림이야. 이러므로 세상에 태어남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밤에 비통해 하는 것은, 대군의 옛 궁에 주인이 없고, 오작이 슬피 울며 인적이 끊어졌으니 나의 슬픔이 지극함ियो, 하물며 병화를 당한 후에 화려했던 궁이 재가 되고 담장은 무너졌으며, 다만 여러 꽃들 우거져 피고 정원의 풀들은 무성하나, 봄빛이 옛날의 경치를 고치지 못하여 인간사가 변하기 쉬움을 생각하고 다시 찾아와 옛날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그러면 당신들은 천상의 사람이십니까?”

“우리들은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 오랫동안 옥황상제를 가까이서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상제께서 태청궁(太淸宮)에서 우리들에게 명하시기를 옥원(玉園)의 과실을 따오라 하심에, 물레 반도(蟠桃)와 경옥(瓊玉)을 취한 것이 많았는데, 또 운영과 사통한 죄로 인간에 보내사 인간고(人間苦)를 겪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상제께서 전의 죄를 사하시어 삼청(三淸)의 있게 하여, 다시 안전에서 모시게 되었나이다. 이에 표륜(鵬輪)을 타고와 인간세상의 옛 놀이를 다시 하는 것이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류영의 손을 잡고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다 닳아도 이 정은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노쇠하고 황폐하여도 이 한은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밤은 그대와 상봉하여 이처럼 따뜻한 정을 펼쳤으나 전생의 인연은 없으니 어찌 얻을 수 있으리오? 오히려 원하오니 그대께서는 이 초고(草稿)를 수습하여 이것을 전하여 써지 않게 하고, 경솔한 이들의 입에 흘러 전하지 않게 하고, 우스갯거리로 생각지 않게 하시면 다행한 마음이로소이다.”

김진사는 술이 취하여 운영에 몸에 기대어 절구 한 수를 읊는다.

花落宮中燕雀飛 꽃 떨어진 궁중에 연작이 날았으니,
春光依舊主人非 봄빛은 예와 같되 주인은 아니구나.
中宵月色涼如許 밤 가운데 달빛은 차가이 이러한데,
碧露輕沾翠羽衣 푸른 이슬은 가볍게 푸른 털옷에 젖더라.

운영도 따라 읊는다.

故宮花柳帶新春 고궁의 화류는 새 봄빛을 띠었고,
千載豪華入夢頻 오랜 세월의 호화함은 자주 꿈 가운데 들었구나.
今夕來遊尋古跡 오늘 저녁에 와서 놀아 옛 자취를 찾으니,
不覺哀淚自沾巾 슬픈 눈물이 스스로 수건에 젖음을 금치 못하리로다.

①류영도 술이 취하여 자다가 산새의 우는 소리에 깨어 사면을 바라보니, 구름과 연기는 천지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하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은 없고 김진사가 적은 책자만 남아 있을 뿐이다.

류영은 책자를 거두어 귀가하여 장 속에 감춰 둔다. 슬프고 무료하여 때때로 열어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모두 폐하고, 후에 명산에 두로 노닐더니 생애를 마친 곳을 알지 못한다.

설재(設齋) : 음식물을 마련하여 승려에게 공양함.

철가(鐵枷) : 죄인의 손발을 묶을 수 있도록 쇠로 만든 형구(刑具)

- 작자 미상, 운영 전(雲英傳) 중에서 -

※ 다음 표는 <운영전>의 전체 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표를 참고하여 43번과 44번에 답하시오.

외화(外話)	내화(內話)	외화(外話)
유영이 혼자 수성궁에 감(꿈을 꾸) 유영과 운영, 김 진사의 만남	운영과 김 진사의 애절한 사랑	운영, 김 진사의 후일담과 당부 (꿈에서 깬) 유영의 행적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3)

- ① 액자 형식의 소설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두 이야기가 전개된다.
- ② 내화는 인물이 경험한 사건을 특정한 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③ 내화의 이야기가 외화에서 구체적인 물증으로 전해지고 있다.
- ④ 외화로 바뀌면서 작품 안 서술자가 작품 밖 서술자로 바뀌고 있다.
- ⑤ 서술자가 바뀌면서 내화에서의 인물 사이 갈등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다.

44. 밑줄 친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44)

- ① ㉠은 내화에서 외화로 바뀌는 장면이다
- ② ㉡은 유영이 꿈에서 깨어난 부분이다.
- ③ ㉠ 전후에는 시간적, 공간적 비약이 있다.
- ④ ㉡ 전후에는 시간적, 공간적 비약이 있다.
- ⑤ ㉡ 전후로 이야기에 참여하는 주요 인물의 수가 달라진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45) [3점]

보기

비극의 본질은 ‘있어야 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다가 패배하고, 그 패배를 통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운영전>에서 ‘있는 것’은 인간본능(남녀간의 애정)을 억누르는 사회 및 그 사회의 윤리고, ‘있어야 할 것’은 인간본능이 제대로 긍정되는 합리적인 사회 내지는 그 사회의 윤리이다. 결국 <운영전>의 비극은 서사적 자아가 현실적인 것-부조리한 유교적 질서, 안평대군적 질서-과 대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극이다.

- ① 김 진사의 입장에서 ‘있어야 할 것’의 성취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소는 ‘특이’의 간악한 행동이다.
- ② 유영 앞에서 슬퍼하는 김 진사와 운영은 ‘있어야 할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데에서 오는 것이다.
- ③ 김 진사와 운영의 ‘있어야 할 것’이 현실에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이 이 작품의 비극적인 면모를 강화한다.
- ④ 유영의 ‘있는 것’과 김 진사와 운영의 ‘있어야 할 것’이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의 비극성이 더욱 고조된다.
- ⑤ 유영은 김 진사와 운영의 ‘있어야 할 것’과 자신의 ‘있는 것’이 서로 배치됨을 깨닫고 그 좌절감에 세상을 등지게 된다.

[정답 및 해설]

1) [말하기 방식의 이해]

정답 ④

해설 ㉠사회자 :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제시한 2016년 당류 저감 종합 계획이라는 시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대상, 즉 가공식품의 당류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자 : '가공식품의 당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라는 토론의 논제를 제시하고 찬성 측부터 반대 측으로 입론의 순서를 정해주고 있다.

㉣찬성1 : '공공의 적', '설탕과의 전쟁' 등 비유를 이용하여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찬성1 : '연구 결과나 선진국의 다른 나라의 정책 등 다양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신뢰성을 결여하고 있다.

㉥반대1 : '물론 과도한 설탕 섭취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라는 의견으로 찬성자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 반대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반대2 : 사회자와 찬성자는 특히 유아의 가공 식품에서 당류를 섭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하였는데 반대 측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가공식품 제조업체의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2) [구체적 방안 추론하기]

정답 ②

해설 <보기>의 정보와 관련 있는 반대의 주장은 '아무런 대책 없이 숙전숙결 식으로 가공식품의 당류 사용을 규제한다면 국내 산업 전체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기업들이 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러므로 설탕을 대체할 천연 감미료를 기업에서 개발할 때까지 유예 기간을 둔 후에 가공식품의 당류 사용을 규제하자는 주장을 한다면 찬성의 주장에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3) [토론 말하기 방식 이해]

정답 ④

해설 사회자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점검하거나 확인하고 있지 않다.

오답

①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를 현황 제시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②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시설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③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언급하여 쟁점을 도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⑤반대신문식 토론이기에 규칙과 예절을 강조하면서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4) [토론의 과정과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②

해설 논제의 형태는 정책 논제로 어떠한 정책의 실행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주장하는 논제이다.

오답

①"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한다"라는 논제이므로 토론을 통해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탐색하고 있다.

③ 찬성측은 새로운 에너지원의 원자력이 적합한 가장 큰 이유를 가격 경쟁력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반대측은 초기 건설 비용에 대하여 신문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측면이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 초기 건설 고비용에 대해서는 찬성측도 인정하고 있다.

④ 반대측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구체적 사례를 들어 피해의 심각성을 제시하여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음으로 두 번째 쟁점은 위험성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위험성 측면에 대해서 찬성측은 구체적 사례를 단순히 원자력 발전의 문제나 아닌 자연재해와 부주의로 인한 인재라는 다른 관점으로 제시하고 오히려 타산지식으로 삼아 현명한 대비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5) [토론의 맥락 이해 및 쟁점 도출하기]

정답 ③

해설 토론의 흐름 상 사회자가 지시해야 하는 것은 찬성 측 제2토론자 입론의 단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개발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야 하고 또 다른 논거를 제시하여 쟁점을 도출해야 한다.

오답

①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바로 원자력 발전소입니다'는 내용 상으로는 적절하나 찬성측 반론이 될 수 없다.

②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는 반대측 입론으로 적절한 내용이 될 수 있다.

④원자력 발전의 문제는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핵폐기물이 만들어집니다'는 반대측 입론의 내용으로 적절하나 토론의 맥락과 순서로 보아 반대측이 먼저 입론할 수 없다.

⑤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를 생각한다면 원자력 발전소를 개발해야 합니다'는 찬성측 입론의 내용으로 적절하다.

6) [글쓰기 계획 점검하기]

정답 ④

해설 대장암 예방이라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식습관 개선의 내용이 주제이다. 그러나 ㉠에서는 투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정부지원책이라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주제의 일관성에 위배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 ㉢은 문제점과 해결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제와 연관성 높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은 식습관 개선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 개인적 경험에서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적인 내용이다. ㉥ 식습관 개선에서 음식과 관련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7) [작문의 특성과 성격 이해하기]

정답 ③

정답 해설 초고의 내용을 보면 친구들에게 심존의 경우를 들어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습관을 개선할 것을 권유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친구들의 식습관 개선이라는 목적을 이루는 글이라고 볼 수 있다.

8) [개요작성 및 수정하기]

정답 ①

해설 새로 접한 글감을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A의 경우 '여성 스스로 남성과는 다른'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는 자료이다. B는 '최근 사회적 분위기가 여성이 지닌 독특한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자료이며, C는 '무조건적으로 여성을 위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이다. ㉢의 경우 여성 차별의 원인의 하위 항목으로 '여성의 의식'이라는 것을 설정한 뒤, A를 활용하여 '여성 스스로 차별 받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내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수정 및 활용방안이다. ㉣은 문제 해결 방안의 하위 항목으로 '사회에서 할 일'을 추가한 뒤, B를 활용하여 기업의 의식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전개하였기 때문에 적절하다.

9) [조건에 맞는 내용 창작하기]

정답 ①

해설 ㉢은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사례제시 → 일반화 → 긍정적 전망제시'의 순서를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은 '최초나 '여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차별'을 보이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후 '여성'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권리로 내용을 일반화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

㉡ 사회의 문제점을 단순히 나열한 뒤 해결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글의 마무리 부분으로서도 적절하지 않다.

㉢ 여성 차별과 관련된 사례의 나열에 불과하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화'나 '긍정적 전망제시'는 나오지 않는다.

10) [어법에 맞게 수정하기]

정답 ④

정답 해설 앞의 내용과 이어지면서 덧붙는 내용이다. 따라서 본래 접속어인 '또한'이 적절하다.

오답 ㉡ '지적하다'는 폭로하거나 폭 잡어 가리키는 뜻이다. 제시된 부분의 내용으로 볼 때 특정한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는 뜻의 '지칭하다'가 적절하다.

11) [맞춤법 적용하기]

정답 ②

해설 '그렇지 않다'를 줄이면 '그렇잖다가 된다. 따라서 '그렇잖거든요'로 쓰는 것이 맞다.

12) [의존 명사의 용법 이해하기]

정답 ②

해설 '많이 때문에'에서 명사형 어미가 관형어로 실현됨을 확인할 수 있다.

13) [피동 표현 이해하기]

정답 ④ '밝혀져'의 기본형 '밝혀지다'는 형용사 '밝다'에 사동 접사 '-히'가 붙어서 사동사 된 다음에 다시 '-어지다'가 붙은 형태이므로 이중 피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언어 자료를 구체적 자료에 적용하기]

정답 ②

해설 <보기>의 마지막에 현대의 경주 방언을 고려한 설명이 나온다. 또한 이두, 조선시대 문헌을 참고한 설명도 나온다.

15)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③

해설 次聆伊耄(차힐이건)은 모두 음차를 해서 '저히고', '저힐이고'로 해독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훈주음종의 방법에 따라 '엄호리건', '머뭇그리고', '아줄이고' 등으로 해독하는 사례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결국 훈주음종으로 해석할 때도 한자 4음절이 3 또는 4, 5 음절로 해석되기도 한다.

16)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정답 ①

해설 프로이트에 따르면 '꿈이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의미가 숨어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꿈은 무의식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또한 발생 원인을 근거로 볼 때 현실적 욕망이나 자극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꿈이 현실적 소망을 반대로 드러낸다는 말은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 꿈의 원인을 '순수한 심리적 자극'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을 통해 정신분석을 활용했다. 결과적으로 꿈의 해석을 통해 정신활동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 꿈의 발생 원인을 '외적 감각 자극'이나 '순수한 심리적 자극'으로 이해하는 경우는 꿈을 일상 생활이 자극과 연관 지어 생각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 요셉의 사례를 보면 꿈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데 정해진 자침이 없으며 직관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 나온다.

㉤ 꿈의 심리학적 특성 가운데 기억력이나 재현 능력과 관련해서는 현실보다 꿈이 더 우월한 능력을 보인다는 설명이 나온다.

17)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④

해설 <A>는 외적 감각 자극과 내적 감각 자극에 대한 설명이다. '외적 감각 자극은 잠을 자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사소한 자극까지를 포함한다. '내적 감각 자극은 내적인 감각으로 신체적 고통을 느끼는 순간이 꿈에 반영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현실에서 느낀 강박관념이 꿈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설명은 '심리학적 자극'이나 '심리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오답 ① 배가 고픈다는 내적 감각이 꿈속에서 배가 아픈 현상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내적 감각 자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외부에서 들리는 알람 소리가 꿈속의 전화벨 소리로 들린 것은 외부 자극이 꿈에 반영된 사례이다.

③ 이불 밖으로 신체가 나온 것이 꿈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 이유는 외적 감각 자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⑤ 전등에 비친 먼지가 꿈속의 나비나 새로 보이는 현상 또한 외적 감각 자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18)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④

해설 ㉠ '신체 내의 자극'과 ㉡ '순수한 심리적 자극'은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일정한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꿈을 꾸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 ① 꿈의 발생 원인 가운데 자극의 종류에 따른 빈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② 자극의 종류에 따른 공포감의 강도는 언급되지 않았다.

③ '신체 내의 자극'에 대한 사례로 질병 발생의 가능성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순수한 심리적 자극'에 의해 꾸는 꿈이 더 낭만적인 내용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⑤ 꿈의 발생 원인을 자극의 종류로 설명하고는 있지만 어떤 자극이 좀더 민감한지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19) [외적 준거를 기준으로 글의 내용 활용하기]

정답 ⑤

해설 ㉢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의 정신질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기>는 불안에 대한 자기기만적이며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를 설명하고 있다. ㉡과 <보기>를 연관지어 이해한다면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자신의 행위나 상황을 합리화하여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믿는 '자기 기만적 상황'을 보여야 한다. ㉤는 교통사고 목격의 후유증으로 약물을 꾸었지만 스스로의 행위를 합리화하고 불안에서 벗어난 사례이다.

오답 ①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고 성적이 오르는 상황은 '불안'과 관련이 없다.

② 강박증으로 인한 '불안' 현상은 보이지만 방어기제를 활용하여 불안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

③ 다른 사람에 대한 호감이 꿈에서 다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불안'과 관련이 없다.

④ '불안'을 겪고는 있지만 방어 기제를 활용하여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고 있지 못하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관계 파악하기]

정답 ⑤

해설 낱말의 유의 관계를 찾는 문제이다. 시험의 경우 '치르다'는 '무슨 일을 겪어 내다'는 의미로 '보다'와 유의 관계를 맺는다.

오답 ① 웃을 '입다'와 '벗다'는 반의 관계에 있는 어휘이다.

② '드시다'는 '먹다'의 놀임 표현이다.

③ 가발을 '들다'의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는 의미이며, '매다'는 '끈이나 줄 따위의 끝을 엮어서 잡아 당기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21) [글의 내용을 발산적으로 평가하기]

정답 ④

해설 B 프로이드는 인간의 정신을 무의식의 뒷밭으로 이해했으며, 인간의 욕구와 본능을 통제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병산의 아랫부분처럼 의식보다 거대하게 내면에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무의식보다 넓고 체계적인 의식 세계를 언급하는 것은 프로이드의 견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오답 이상의 '오감도 시 제 4호'는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숫자를 뒤집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의사의 입장이 되어 현실을 진단하고자 하나 정확하게 언어로 진단이 어려워 숫자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①, ③, ⑤는 이상 시의 화자가 할 수 있는 말이다. 또한 프로이드의 견해를 참고할 때 ②와 같은 반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22) [한국문학 특수성에 대한 이해]

정답 ④

해설 유배가사는 정치적 패배로 인하여 유배를 당하여 유배지에서 고난의 생활상을 기술하면서 우국지정을 토로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사대부들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숨겨진 야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① 조선시대 시가 문학의 쌍벽을 이루는 시조와 가사는 유교적 이념을 담은 사대부들이 주로 향유한 문학이기 때문에 사대부들의 현실적인 삶을 반영한다.

② 가사는 형식적으로는 운문, 내용적으로는 산문이라는 갈래적 특수성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담아낼 수 있는 갈래였다.

③ 연군가사도 유배라는 상황과 결부되어 있는 작품이지만 유배의 고통보다는 그 상황에서도 임금에 대한 충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연군가사와 유배가사 속에서도 자연이라는 공간과 소재가 드러나지만 그 속에서 즐기는 강호한정보다는 정치적 갈등을 바탕으로 한 절실한 개인 정서를 주로 다루고 있다.

23) [시가문학의 화자 이해하기]

정답 ①

해설 (나)와 (다)의 작품은 둘 다 실제 작가가 유배의 상황 속에서 쓴 작품이다. 규양살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나)는 임금에 대한 충의 정서를 (다)는 어머니에 대한 효의 정서를 주로 표현하

고 있다. 화자는 둘 다 유배의 상황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② (나)와 (다)의 화자는 유배라는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상황에서 그리움의 대상에 대한 간절함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간절함을 절망의 정서나 극복의 태도로 보기에는 어렵다.

③ (나)와 (다)의 작품 배경이 정치적 갈등이 있지만 작품 자체 내용에는 정치 현실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나)는 연군지정과 관련되어 있지만 (다)는 그러한 연군지정이나 우국지정과 관련이 없다.

④ (나)와 (다) 둘 다 정치 현실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작품이며 (다)의 작품의 화자가 자연 속에서 회한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무엇에 대한 회한의 정서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한 답변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다)와 달리 (나)는 여성 화자를 설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여성 화자의 정서는 남성적 대상인 '남'에 대한 절절한 감정을 그리기 위해서 설정한 것이지 체념의 한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24)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⑤

해설 화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친숙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마음이 향하는 공간, 즉 임금이 계신 곳과 어머니가 계신 곳을 한기하고 있다.

오답

① (나)는 계절적 배경으로 시상을 전개하나 (다)는 가을이 정서를 부각하고 있을 뿐 시상 전개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둘 다 주변에서 보는 친숙한 일상적인 소재들이 나타나지만 그 것들을 열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는 점층적 전개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③ 4음보 연속체라는 율격을 사용하고 있지만 둘 다 선정후정 전개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독백적 어조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청자를 설정하여 묻고 답하는 형식이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다.

25) [시어의 함축적 의미 이해]

정답 ①

해설 (나)의 '달'은 임이라고 착각하고 싶은 대상이므로 그리움을 투영시킨 대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의 '달'은 화자가 원하는 대상과의 소식이 오지 않는다는 거리감에 대한 정서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리움을 투영시킨 대상이 아니다.

오답

② (나)의 '산과' (다)의 '산'은 화자가 원하는 대상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장애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③ (나)의 '청광'은 임금에게 전달하고 싶고 (다)의 '밝은 달'은 화자가 있는 곳과 어머니가 있는 곳에 비추고 싶기 때문에 화자가 원하는 대상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으로 화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④ (나)의 '새'는 한 겨울이라는 매우 추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와 대상이 처한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다)의 '새'는 어머니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의 절실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⑤ (나)의 '소상남반'은 유배와 있는 곳이 남쪽으로 화자가 처해 있는 곳이고 (다)의 화자는 북쪽으로 숨어 있기 때문에 화자의 위치가 북으로 오히려 '남천'은 화자가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있는 곳이다.

26) [내용의 전개방식 파악]

정답 ③

해설 유추의 방식을 활용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① 2문단에서 프로펠러의 개수에 따라 드론의 명칭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드론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일반적 비행기와의 공통점 차이점을 통해 드론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 '제자리 회전은 어떻게 할까?'와 같이 질문의 방식으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27) [핵심정보 파악]

정답 ④

해설 마지막 단락에서 초음파 센서는 정확하지만 특정 지형이나 금속에서 오작동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센서 자체가 부정확한 것은 아니다.

2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④

해설 드론은 프로펠러가 강하게 회전해 더 강한 바람을 만드는 반대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와㉡가 더 세계 돌면 드론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답

⑤ 드론의 이동 방향에 따라 프로펠러 회전 속도의 짝이 바뀌지만, 프로펠러의 회전 방향은 항상 대각선으로 마주 보는 쌍끼리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29)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③

해설 (가)는 과거의 고향의 모습과 현재의 고향의 모습의 시간과 공간적 배경을 대비시켜서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시대의 흐름에 쫓아가지 못하는 낡은 집과 주위의 변화한 상가라는 공간적 배경을 대비시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① 역순행적 구성을 이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가) 역순행적 구성이나 (나)는 무대 시작한 이후 시간 순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대화와 독백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가)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이라 독백과 같은 말해주기로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할아버지의 대사가 드러나고 있지만 이 대사 하나를 통해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는 전체적으로 가족끼리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 독백에 의존하여 인물의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④ 인물의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가)와 (나) 둘 다 인물의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⑤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가)는 오히려 내적 갈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있으며 (나)도 극 중 인물끼리 갈등하기 보다는 최 노인의 시대 상황으로 인한 갈등이 더 중요하다.

30) [대사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해설 ①에서 나타난 왕소나무가 사라져 버린 사실에 대한 인식은 '나' 스스로 ㉔상황민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② ㉔는 인물에게 ㉔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객관적 증거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 ㉔가 인물에게 ㉔라고 판단하게 된 증거라기보다는 ㉔가 인물이 옛날과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느끼게 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 ③ ㉔와 ㉔는 인물이 고향을 찾아가면서 자아성찰을 하게 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 이 작품은 자아성찰이 주제가 아니라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중요하고 두 가지를 자아성찰의 계기라고 볼 수 없다.
- ④ ㉔와 ㉔는 인물이 다른 인물과 갈등하게 되는 매개체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 (나)의작품은 인물이 다른 인물과 갈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물이 변화하는 시대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㉔와 ㉔는 최 노인과 그 자식들의 갈등을 매개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㉔는 ㉔로 연결되어 인물 내면의 혼란스러움이 정리되고, ㉔는 ㉔로 연결되어 인물의 외적 갈등이 강화된다. - ㉔가 인물의 내면의 혼란스러움이 정리된 것이 아니라 상실감을 부각시키는 것이고 ㉔와 ㉔는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강화로 해석할 수 없다.

31) [외적 증거를 기준으로 평가하기]

정답 ②

정답 ② (가)는 산업화가 발전되면서 농촌 공동체의 해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마을의 세태를 다각도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마을의 전통으로 기억되고 있는 왕소나무가 사라진 상황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오답 ① (가)는 '수팔'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성장했던 고향에서의 삶을 담당한 회상의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 관춘수필은 소설의 제목을 수필로 설정하여 자신이 실제 고향에서 경험한 자전적 소설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1인칭 주인공 서술자 시점을 통하여 회상과 현재의 상황을 연결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③ (가)는 작가가 왕소나무와 함께 할아버지를 연상하여 전개하면서 조상의 얼과 민족 전통의 상실을 강조하고 있다. - 오랜 만에 찾은 고향에서 왕소나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충격과 함께 왕소나무에 대한 의미를 어린 시절의 할아버지와 대화를 떠올리며 전통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 ④ (나)는 무대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시대의 흐름에 갈등하는 인물의 군상을 드러내고 있다. - '불모지'는 무대 배경 자체가 도시화가 진행되어 있는 상황에서 최 노인 가족이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갈등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⑤ (나)는 현대적인 고층건물과 낡은 고옥을 극중 배경으로 드러내어 새로운 가치관과 전통적 가치관이 대립하는 시대적 상황을 암시하고 있다. - 무대 배경이 낡은 최 노인의 집 주변으로 도시화의 상징인 고층 건물을 배치하여 배경 상징 자체가 인물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32)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해설 ④ ㉔ 어린 시절 '나'는 할아버지가 말하려고 했던 전통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기 보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들을 곧이듣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또한 할아버지가 외경스러워하던 모습이나 개탄이 무엇을 뜻하는 지 알 듯도 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할아버지가 전달하고 싶었던 조상으로부터의 내력과 전통에 대한 의미를 알리고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 오답 ① ㉔ '나'는 변형없는 옛 산천의 모습을 보자 고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라 볼 수 있다. -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 과정에서 기대감을 표현한 부분으로 고향의 자연을 보자 설레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② ㉔ '나'는 열린 창가에서 바라본 부락의 모습에서 기대했던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고향의 모습이 변한 것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③ ㉔ 새로운 문명이 들어왔어도 버티고 있었던 과거의 왕소나무의 모습은 '나'에게 울분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 왕소나무는 철길과 신작로 옆에서도 곳곳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신문물과 대비되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
- ⑤ ㉔ 마구잡이 질서 없이 들어선 집들로 인한 마을의 모습에 대하여 못마땅해하는 '나'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근대화와 도시화로 인한 무질서한 마을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마을 공동체의 해체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느끼게 한다.

33) [대사의 기능 이해하기]

정답 ②

해설 ② ㉔ 경제와 최 노인은 도시화된 속에서 낡은 집에 대하여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운은 물을 길어오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 추가적 동선이 외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갈등이 심각해지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지시로 볼 수 있다.

오답 ① ㉔ 극의 시작을 알리는 동선의 시작으로 무대 가운데 공간에 있는 다른 인물 옆으로 이동한다.

- ③ ㉔ 외양과 분위기로만 제시되던 인물이 동선이 시작되면서 인물의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 ④ ㉔ 인물의 비언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을 강조하여 표현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 ⑤ 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선 변화와 함께 인물에 대한 연출이 바뀌고 있다.

34) [내적 증거를 기준으로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⑤

해설 (가)는 다양한 이미지와 '그곳이 차마 고크엔들 잊힐 리야'라는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꽃이 지는 모습을 통한 무상감과 비애를 드러내고 있다. (다)의 경우에는 떨어지는 꽃을 청자로 설정하여 생명력과 삶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세 작품 가운데 (다)만이 자연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으며, (가)와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

35) [외적 증거를 기준으로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③

해설 '감각의 향연'은 이미지즘 시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이러한 시어의 특징을 '회화성'이라고 한다. 반면 운율과 리듬감은 '음악성'과 관련된 내용이 된다. 따라서 ③은 <보기>를 잘못 이해한 감상이다.

오답

㉔를 통해 볼 때, (가)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 표현해 내고 있다. 이는 단순히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서 아름답고 참신한 인상을 주는 시어들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다듬어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지줄대는', '휘둘러', '해설파', '풀설', '함초를'과 같은 시어는 참신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는 시어들이다. '비안'이나 '잊힐리야', '우지짓다'와 같은 말은 '반', '잊히라', '우짓다'와 비교할 때 시인이 의식적으로 말을 다듬어 썼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실개천', '얼룩백이 황소', '질화로', '짚배개'와 같이 토속적인 정감을 주는 시어들은 읽는 이에게 유년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고향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시인의 언어에 대한 뛰어난 감수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㉔의 경우 이미지즘의 시를 'Dry and Hard Image'라는 말로 설명한다. 감정은 메말라 있지만 견고한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정을 드러낸다는 것이 이미지즘 시의 특징이다. (가)의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그리움 등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절제된 감정 속에서 오히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내고 있다.

㉔으로 볼 때, 얼룩백이 황소의 '금빛 게으른 울음'은 청각적 인상을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표현으로,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가운데 한가롭게 들려오는 황소의 울음소리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평화롭고 아늑한 고향의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다. 한밤중에 횡령한 발을 가로지르는 '밤바람소리'는 청각적 인상을 시각적 인상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표현이다. 그 외에도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36) [고쳐쓰기의 효과 파악하기]

정답 ⑤

해설 (나)를 쓴 뒤 <보기>를 쓴 효과를 파악하는 문제 유형이다. (나)의 '촛불'은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배경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보기>의 '촛불'은 '꽃'의 고운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⑤는 잘못된 감상이다.

오답

- ① (나)의 '잊히라', '붉어라'와 <보기>의 '설어라' 등에서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 ② (나)는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보기>는 '두견(杜鵑)이도 한복창 울고 지친 밤' 등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③ (나)는 저녁에서 새벽을 거쳐 아침까지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보기>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으로 사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④ (나)는 묻혀 사는 이가 '화자'를 가리키고 있어서 고운 마음의 주체 또한 '화자'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그 주체가 '꽃'으로 변화했다.

37) [외적 정보를 근거로 작품 이해하기]

정답 ④

해설 <보기>를 근거로 할 때, '꽃'은 삶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뜨거운 삶의 욕구를 지니고 있다. 또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때로는 비와 바람에 무방비로 고통 받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저문 산 길가에 지는 최후를 맞게 될지라도 자신의 삶을 열정적으로 불사르는 꽃의 모습을 시적 화자는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자신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 인간의 삶과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다.

오답

- ① 아름다워서 단명했다는 말을 찾을 수 없으며 죽음으로 인한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
- ② 이상을 그리워하고는 있지만 현실과의 괴리를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작품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작품 속 꽃은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열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 ⑤ 고통과 괴로움, 죽음으로 인한 허무까지를 담담하게 수용하는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상을 지향하지만 허무와 죽음까지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을 수는 없다.

38)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정답 ①

해설 ① 유전자는 일정한 순서의 염기 서열을 가졌으며 이 순서에 따라 특정한 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따라서 염기 서열 정보에 따라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재료가 되는 물질이 아니다.

오답

- ② 유전자는 화학 물질인 네 가지 염기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DNA 안에 존재한다.
- ③ 부모의 DNA의 염기 순서가 자식 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유전이다.
- ④ 유전자 정보 안에서 주어진 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운명에 대한 과학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 ⑤ 유전자 정보를 인간이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인간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

39) [내용 전개법 확인하기]

정답 ⑤

해설 ㉞유전자라는 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과정에 따른 서술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오답

- ① ㉞ 유전자나 DNA등 구체적 용어나 개념을 정확하게 지시한다.
- ② ㉞ 유전자와 관련된 수많은 선행 연구와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 ③ ㉞ 계량화 수량화된 정보를 제시하여 유전에 관련된 글인 만큼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드러낸다.
- ④ ㉞ 과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글이지만 인간의 가능성은 유전자를 활용하는 것이라는 글쓴이의 의견이 드러나는 글이다.

40) [내용을 추론적으로 이해하기]

정답 ⑤

해설 ㉞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으로 유전자와 환경을 잘 파악하여 유전자 기능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간의 유전자에 대한 능동성으로 추론해야 한다.

오답

- ① DNA가 두 개로 복제될 때 똑같이 복제되지 못한다는 것에 종속되는 것이 글쓴이의 의견이 아니다.
- ②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조절 인자인 단백질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③ 유전자 서열이 일치할수록 환경과 자극보다는 유전자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가 어떠한 환경 자극에 처하느냐는 상관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 ④ 유전자는 정해진 것이지만 이것이 발현되는 것은 환경 자극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사한 답안으로 보이지만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후천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이라 볼 수 없다.

41)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④

해설 ④ 3대에 여자 쌍둥이가 비만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삼대 가족 내력이 아니라 모계의 유전이 발현된 것이다.

오답

- ① 가족의 3대의 유전자 정보에는 남자는 대장암이 여자는 난소암이 유전되고 있다.
- ② 1대에 할머니의 유전자 정보를 보면 유전자 서열은 물려 내려왔더라도 자매 난소암 발병은 50%이므로 환경과 자극의 상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③ 2대에 남자 자식 중 대장암의 발병이 50%인 것도 환경과 자극의 차이나 유전자 아미노산 서열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돌연변이의 관련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⑤ 3대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성별의 결정이나 유전자 정보가 어떤 단백질을 만드는 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유전이 어떻게 발현될 지 예측할 수 없다.

42) [다른 장르에 적용하기]

정답 ⑤

해설 ⑤ 윗글의 글쓴이의 의견은 유전자가 고정되어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생활 방식에 따라 유전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운명은 유전자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의 유량의 길을 떠나는 사건은 유전적으로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 자극에 통해 본인이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 볼 수 있어야 글쓴이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 된다.

오답

- ① '성'의 외할아버지가 남사당패였고 아버지가 떠돌이중이라는 점에서 '성'의 운명의 대를 이어 이어지는 유전 정보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유전에 대한 내용을 대응시킨 것이 지 글쓴이의 의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 ② '성'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어머니 '육화'는 인간의 삶은 유전자에 의해서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글쓴이가 주어진 유전자에 의한 삶을 받아들이는 의견을 가진 것이 된다.
- ③ '성'이 계연을 사랑하게 되는 상황은 주어진 운명이라는 삶보다는 운명을 개척하려는 인간 본연적인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윗글의 유전자에 대한 설명 내용이나 글쓴이의 의견과 관련이 없다.
- ④ 계연이 '성'의 이복동생임을 안 '육화'의 반응을 주어진 유전자 정보 안에서 정해진 삶을 살지 말고 환경을 통해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오히려 정착의 삶이라는 운명에 도전할 원했던 '육화'의 의지가 혈연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게 된 것이다.

43) [작품의 형식과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⑤

해설 서술자가 바뀌는 것과 인물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밝혀지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다.

44) [작품의 구조 및 특징 이해하기]

정답 ④

해설 ㉞는 술에 취했다 잠든 유영이 꿈에서 깨는 장면이다. 따라서 시간적 비약과 공간적 비약이 둘다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5) [외적 준거를 기준으로 작품 평가하기]

정답 ③

해설 김 진사와 운영의 '있어야 할 것'은 둘 사이의 애정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는 운영의 자결과 그 뒤를 따르는 김 진사의 죽음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의 결말은 '있는 것(현실적 장애 요인들)'에 의한 '있어야 할 것'의 좌절을 통해 '있어야 할 것'의 가치를 부각하고 이것이 이 작품의 주된 비극성이라 할 수 있다.

● 우리는 교육과정과 출제 경향을 고려하여 최선을 다해 문제를 만든다.

● 우리는 진심으로 '양치기'를 만들지 않는다.

● 우리는 대학원생이나 대학생 알바를 시켜 문제를 급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다만, 우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양질의 엄선된 문제를 모평 전에 풀 수 있도록 시험 대비와 사교육의 평등을 지향한다.

● 수험생들의 관심과 응원이 우리의 작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 밝힌다.

9월 모평 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백구 국어 연구소 일동

[백구 국어 연구소 구성원]

백구 국어 강병길 현) 강남 하이퍼학원

야호 국어 강호재 현) 수원 스카이에듀학원

최강 국어 여지영 현) 종로학원 본원

개념 국어 윤강희 현) 대치 예שמ학원

네오 국어 허준영 현) 강남 종로학원

검토 : 김종희 (강남 하이퍼학원) 백운주(신촌 스카이에듀학원)

감수 : 정현태 (강남 종로학원)

학생 검토 : 최** (서울대학교)

김** (광주교대)

조** (한양대학교)

그 외 등급컷 결정을 위해 문제 풀이에 참여해 주신 **서울대 17학번 15명의 재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학생 검토를 바탕으로 예측한 **1등급 컷은 88점**입니다.

百求 국어 연구소